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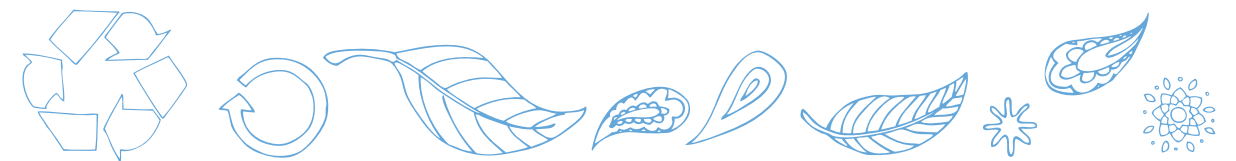


성가소비녀회 마르누 예수 · 마리아 · 요셉을 상징한다.  
첫째 기둥 J는 예수(JESUS), 가운데 M은 성모 마리아(MARIA)  
둘째 기둥 J는 요셉(JESEPH)을 형상화한 것이며, 원은 수도 공동체를 뜻한다.  
하느님의 종들로서 구원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신  
예수 · 마리아 · 요셉을 본받는 소비녀(小婢女, 작은 여종)들의 삶을 의미한다.

에코인간과 소명을 사느 이들을 소비녀



에코인간과 소명을 사느 이들을 소비녀





## 소비녀

소·비·녀  
 생명을 품어 안고  
 생명을 돌보며  
 생명을 노래하며  
 생명과 함께 성장하다



통 권 제33호  
 발 행 처 성가소비녀회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

### 짜 임

- 03 설립자 말씀, 회헌
- 05 사진으로 보는 총회
- 12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 설립자를 통해 우리의 꿈으로 이어지고\_ 이 프리스카 수녀
- 18 새로운 출발선에서\_ 박 뵤에따스 수녀
- 20 새 관구장 수녀님께 질문합니다\_ 나 니콜라오 수녀

### 아래로 가는 길

- 26 천주님 앞에서 다시보자, 안녕\_ 박 루디빈 수녀
- 34 성가소비녀들의 아주 특별한 전례\_ 의정부관구 양성소

### JPIC - 정의 평화 창조질서보전

- 46 JPIC 사무국을 소개합니다\_ 이 다비드 수녀
- 51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_ 박 자캐오 수녀
- 56 하느님께서 보시니\_ 광 아나뵤 수녀
- 61 생명 그대로의 온전함을 위하여\_ 김 마르셀 수녀
- 67 우리에게 오신 난민 예수\_ 박 나타나엘 수녀
- 72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한 그녀들\_ 조 예수의소피아 수녀

### 현장 연대 스케치

### 곶다시 모여사는

- 78 순명,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환대\_ 김 도로시데이 수녀
- 84 가난, 우주적 소명\_ 최 바오로 수녀
- 88 정결, 나를 꽃피우다\_ 황 예수아 수녀
- 94 충만한 가난의 여정\_ 이 사도요한 수녀
- 100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찾아서\_ 송 버나뎃 수녀

### 거둠

- 107 성가에 있었던 일
- 110 그림 속의 소비녀\_ 이 잔마리 수녀

## 설립자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00년 전의 세상도 아니고 중세의 세상도 아닌,

바로 오늘의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요청을 우주적 차원으로 바라보고 식별하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선택과 응답을 한다.

(성가의 빛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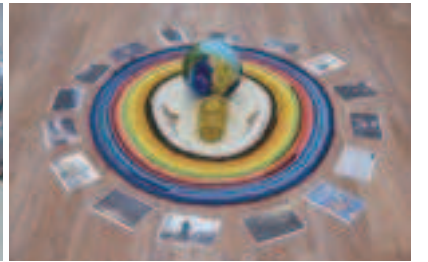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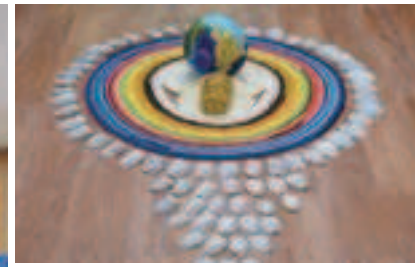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그치신다,  
세상의 절박한 곳으로”

- 예언적 양성예로의 부르심













#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 설립자를 통해 우리의 꿈으로 이어지고

총장 이 드리스카 수녀



## 이번 총회의 여정은 어떠하였는가요?

제16차 총회를 연 2017년은 우리 수도회 설립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는 수도회 초기부터 총회를 통해 주요한 결정들을 다루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으로 초기 공동체가 일찍이 자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에 중요한 결정 방식 또한 발전하였습니다. 그것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16차 총회 역시 토론과 대화와 기도로 모든 회원들이 함께한 총회였고 성령께서 회원들 개개인을 통해 초대하시고 재촉하시며 함께 하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적 소명을 살아가는 수도생활 안에서 그 시대의 요청을 읽어내야 하는 총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과 함께 했던 16차 수도회 총회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언적

사명을 다시 확인하였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 안으로 이끄시는 움직임을 따라가며 의안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총회의 모든 과정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알아듣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인간적 상황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했듯이 그것이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이든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든 그분의 움직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회의 가장 큰 결실은 곧 공동체의 하느님 체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 16차 총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핵심이라고 한다면 '순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순환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는 에너지에 의해 상생하는 원리, 움직임입니다.

다. 움직임은 곧 살아있음이고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생명력입니다. 이 순환의 원리는 하느님 창조 의 원리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바다와 땅, 하늘이 둥글고 우주가 둥글고, 생명을 품은 모태가 둥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순환시키는 생태적 구조는 원형 구조입니다.

원형 구조에는 시작도 끝도, 높음도 낮음도 없이 하나를 이루는 유기적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원형 구조 안에서는 각자의 내면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그 무엇 하나도 배제되거나 억압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로 존중되고 허용됩니다.

이러한 원형 구조 안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재화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좋은 점들, 자원들, 수도자라는 존재 등, 각자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이 그 공동체의 재화가 됩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지적인 것이든, 경험된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한 사람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재화로서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형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

한 자산과 재화를 끌어내어 새로운 사회 - 하느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공동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은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16차 총회

를 통하여 결정한 의안들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가소비녀회 회원들 모두가 16차 회기를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6차 회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녀로서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설립자 신부님을 통해 우리 수도 공동체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그 시대의 필요와 요구라는 표징에 따라 살아온 것이 저희 수도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돌아본다면, '절박한 곳'으로 가도록 우리를 다그치시는 영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15차 회기를 보냈고 이어 16차 총회를 통해 다시 같은 주제로 다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국내외 현실에서 우리에게 매우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절박한 곳, 변방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수도 삶의 예언성과 신비성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하느님 체험을 통한 세상에 대한 연

민과 연대를 성장시켜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16차 총회 부제가 말하고 있는 '예언적 양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 불의한 경제 논리



는 빈곤층의 확대, 노동자 문제, 환경 파괴 문제를 비롯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세력들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세계를 향해 복음적 메시지를 던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 내부의 영역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개혁하는 과제를 결정한 것이지요.

앞에서 언급한 16차 총회에서 결정한 의안들의 핵심을 '원형 구조'와 '정의롭고 생태적인 재화 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안들은 공동체 내부영역들인 양성, 공동체, 사도직, 수도회 운영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들입니다.



### 기억하고 희망 만들기

우리 수도 공동체의 역사가 중요한 것은 오늘을 있게 하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던 야훼 하느님을 떠올리며 파스카를 행했듯이 우리 성가소비녀들도 설립자 신부님과 선배 수녀님들의 겸손하고 순박했던 단순한 열정의 터전을 새롭게 조명하며 환기시키고 감사와 사랑의 기억을 통해 오늘 우리 현재를 채신하는 에너지로 삼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 안에서, 빅뱅의 순간부터 생명의 진화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경이로움을 체험하듯이, 설립자 신부님과 선배 수녀님들의 기쁨과 열정, 사랑과 고뇌, 감사와 찬양의 발걸음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섭리를 기억하고, 그 하느님을 오늘의 상황 안에서 발견하는 과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선배 수녀님들의 공동체 모습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 모습처럼 순박한 자기 증여와 나눔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공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일상의 궁핍과 굶주림을 넘어 자매와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의 기쁨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적인 배경이며 큰 힘입니다. 소중한 유산이지요.

### 공동사명 실행을 위한 공동체 건설-공동체 책임 순환제

우리 수도회는 그동안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운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계획, 식별, 실행, 평가하는 합의체를 이루고 진정한 순환 모델로서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었지요. 16차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 책임 순환제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는 양성입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고, 구성원 서로가 존중하고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공동합의를 이끌어내고 함께 행동한다면 공동체는 사명 수행을 위한 기초로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책임 순환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양성되어야 하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마치 한 몸의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각 기관의 영양이 골고루 전달되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듯이 공동체의 모든 과정이 그리고 구성원 간의 관계가 순환되어 원활해야 합니다.







## 예수님의 제자 되기, 예수님의 공동체 되기

예수님이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설립자 성 신부님이 꿈꾸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움직이는 세상인 하느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사회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순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이 원리가 작동하는 곳에는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하느님의 다스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의안인 '원형 구조로 이동 한다.'와 다섯 번째 의안 '정의롭고 생태적인 재화운용'을 함께 연결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형 구조'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해방을 통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언적인 소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력을 잃게 된 사도직, 공동체 현장의 '절박한 문제'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치는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예언적 소명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선물, 보화로서 재발견하여 세상에 내어주는 '재화'로서의 개인과 '재화'로서의 공동체. 서로를 증여하고 나누는 것은 상호의존, 상호존중의 순환적 관계성입니다.

순환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는 에너지에 의해 계속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닙니다. 다. 그래서 원형 구조는 생명을 순환시키는 생태적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가 아닐까요?

##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도하다보면 당신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만드십니다. 당신께서 살지 않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이 한 마디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선포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지금 오늘에 선포할 때 내가 살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지요.

'예언적 양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나선 그 순간부터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보는 그날까지 수도자의 자기 양성은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자로서 서원한 후, 모든 일은 모든 것은 다 양성의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하느님, 그분의 현존과 맞닥뜨릴 때 나는 최고의 양성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나의 양성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도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삶의 가치가 다르므로 삶의 방식이 다르고 중심이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중되고 다양한 생각과 느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양성되어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세상에 나가서 함께 사는 삶이 선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공동체적 삶이 곧 선포가 되는 예언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동체성을 우리는 수도 공동체로 불림을 받으면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욱 충만하게 살기 위해 또 다시 노력하자고 결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설립자 신부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 새로운 출발선에서...

박 베에파스 수녀

원형구조, 참 낯선 말입니다. 가장 절박한 곳에서, 보다 능동적이며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할 구조 변화라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를 살게 하는 구조' 또는 '평등과 공평, 정의와 사랑, 생명이 있는 구조'라는 말로 대신하면 든구름 같을까요?

원형구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형구조, 원형구조물을 찾아봅니다. 눈동자, 카메라 렌즈, 컵, 시계, 바퀴, 동전, 지하철 2호선, 지구, 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 원형구조의 특성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또 단어로 나열해 봅니다. '연결, 순환, 제자리, 평등, 공평...' 다시 '순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공동체, 피, 생명, 자연' 이란 단어들이, 또 시작과 끝이 없는 원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느님, 태극, 우주 등이 떠오릅니다. 낮과 밤이 돌고, 계절이 돌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우주의 궤도운동...

여기서 퍼뜩 우리가 16차 총회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자연의 순환원리'를 찾아 그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결정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태어날 때 그만이 독특하게 지닌 태어난 목적, '소명'이 있습니다. 꽃, 풀, 나무, 새, 흙과 물과 불과 바람과 햇빛과 비, 물에 사는 모든 것들, 맹수들과 가축 떼들, 그리고 사람들... 참으로 다양한 존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며 의지하고,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며 순환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아마도 각 개체들이 전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한된 공간, 조건, 시선, 경험이 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없게 하겠지요. 그래도 우리 수녀님들은 하느님을 알

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우주를 알고, 창조된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산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피조물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소명과 함께 태어날 때부터 살기 위해 갖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라고 하지요. 이는 물질이 생성, 변화, 소멸되는 에너지(氣)의 이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음으로써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삶, 그 과정에서 누리는 자연의 혜택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누어집니다. 낮과 밤이 바뀌며 햇빛을 쬐고 활동하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계절이 바뀌며 씨를 뿌리고 열매를 따먹기도 합니다. 우리 수도회도 '강생'의 영성으로 탄생되어 성장해왔고, 성장을 멈추고 노년기에 들어선 느낌이 드는 지금, 자연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순환을 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키워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은 털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시간이 다 한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또 이웃에게 심어진 보화를 찾아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아니라 자연, 물질, 시간, 재능과의 관계 안에서 털어내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과 없애야 할 것, 나누어야 할 것과 도움을 받아야 할 것,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 자연의 원리를 내 안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구촌 모든 곳에서 동시에 똑같은 양의 햇빛과 비를 바랄 수 없습

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면서 다른 존재가 꽃피우며 나를 도와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33) 포기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평등과 균형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채워지고, 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원형구조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생태사도직을 사는 것과 정의롭고 생태적인 재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각자의 존재목적, 소명을 충실히 살아낼 때 개인과 세상은 조화롭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수녀님들 각자의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소명, 성가소비녀회에 입회할 때의 소명, 수녀로서 받은 소명, 현재 있는 자리에서의 소명은 무엇인지요? 아마도 이들이 제각각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소명은 무엇이냐고요? 저는 이름에서 소명을 발견합니다. 박화경 쥬마, 베에파스 소비녀. 耜耨, Gemma, Pietas, 小婢女. 보이시나요, 저의 소명?

오늘, 늘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 새 관구장 수녀님께 질문합니다!

유기서약 소비녀들이 묻고 나 니콜라오 소비녀가 응답하다



2017년 2월 20일 관구장 수녀님이 새로 선출 되었습니다. 새 관구장 수녀님에게 궁금한 것이 없는 지 유기서약 수녀님들에게 슬쩍 말을 건네었더니, 그들의 공동 카톡 방에서 질문을 모았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유기서약 수녀님들의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게 느껴집니다. 니콜라오 수녀님이 질문에 응답해주시고, 옆에 함께 있던 평의원 수녀들이 한두 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대의원은 아니었지만 참관인으로 관구총회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관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 일의 최 일선에 서게 되신 수녀님께서 이번 총회결정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행정팀 뿐만 아니라 수도 회원들 모두 어떤 노력들을 함께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니콜라오 수녀 :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라면 총회에서 의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회원들과 직접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 그리고 행정팀이 느끼는 온도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다르겠지요. 총회 결정에 함께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어떤 결정사항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온도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모든 회원이 직접 참여를 했든,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든, 내가 결정한 것처럼 협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행정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카리스마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총회의 결정사항들이 과거와 비교하여 어떤 지점에 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니콜라오 수녀 : 그동안 있었던 총회의 주제를 돌아보면 맥락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14차 총회까지는 우리의 시선이 내부에 머물러 있었다고 봐요. 내리시오, 주님의 안배를 믿으시오, 기뻐하시오, 비우고 가시오 등과 같이 머물러 있는 우리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는 몸짓 같은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15차부터는 세상을 향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확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전환이라고 봐요. 세상의 절박한 곳으로 가도록 다그치시는 주님의 영계서 소비녀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역동적으로 떠밀어내었던 회기였다고 봐요. 지난 4년 동안 현장 속의 소비녀들을 세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지요. 우리의 축수가 밖을 향해 있었고 세상을 향해 눈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난 4년을 살고난 뒤에 우리 안에 자성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세상의 절박한 곳으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중요한 미션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언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언자라로서 준비된 수도자들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16차 총회는 주님의 영이 다그치시는 세상의 절박한 곳에 꼭 필요한 소비녀들이 되기 위해 우리 각자를 예언자로 양성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예언적 공동체로 양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총회라고 봅니다. 총회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마리루나 수녀도 한 마디 거들어요 : 설립자 신부님이 우리 수도회가 외적으로 너무 커지는 것을 보시고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다고 걱정하신 것처럼, 밖으로 나와 보니 우리의 내실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감지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영신적 위험 신호를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기초와 본질을 충실히 다지자는 총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이번 총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 시대 안에서 우리 수도회가 먼저 식별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니콜라오 수녀 : 자본주의! 부지불식간에 어느덧 내 삶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자본주의, 가끔 내가 얼마나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당연한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 이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서 가장 먼저 식별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벨라렛다 수녀가 옆에서 한 마디 보태요 :** 저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우리 관구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꿈인데요.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실행사항은 우리가 가난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생태사도직에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기관 사도직 식별에 중점을 둔 사도직 재편도 그렇고, 정의롭고 생태적인 재화운용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수도회의 노령화 문제로나 현재의 사도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떠밀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장엄한 탈출을 감행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건너야 할 홍해는 포기의 강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땅야는 가난과 불편이겠지요.


**성심 수녀도 한 마디 합니다 :** 우리가 수녀원이라는 틀 안에서 부르조아로 살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게 됩니다. 안주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는 것 안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생활은 아닌지, 깨끗하게 잘 갖추어진 생활 안에 적응하면서 무뎠던 우리들이 아닌지, 철저한 자기 진단과 안정된 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원형 구조 안에서 각 회원은 어떤 리더십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원들의 리더십 성장을 위해서 수녀님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니콜라오 수녀 :** 원형구조가 우리 안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같이 협력해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회원들의 리더십도 성장할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내고 그것을 놓고 함께 토론하여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서로 힘을 받고 이것이 또 공동체에 생명력을 주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양각색의 색깔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면서도 개인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긍정적인 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수도생활의 에너지를 회원들안에 불러일으키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순환제가 제대로 잘 실천되면 리더십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이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의안들도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수도회에 파급되겠지요. 저는 공동체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성심 수녀 :** 늘 누군가를 통해서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는, 오히려 쉬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어린애로 살아온 우리들이잖아요. 물어봐서 대답해주면 편하지요. 자기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고 그것에 대해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오히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선택해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형구조로 이동하면서 책임자 순환제와 함께 관면 범위를 새롭게 조정했는데 그동안 묶여 있던 것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늘 허락받으면서 살아오는 동안 작아지고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스스로 사유하고 식별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런 가운데 넘어지고 갈등도 겪으면서 성장해간다고 봐요.

 **이번 총회가 원형구조를 주요 의안으로 다루었는데 새로 구성된 평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기존과 어떤 새로움이 있었는지요?**


**니콜라오 수녀 :** 새로움이라기보다 예전과 다른 것을 느꼈는데요. 그동안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주자, 끌고 가자는 식의 리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팀에서는 모든 것이 회원들 입장에서 회원들 중심으로 회원들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확연히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원형구조와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녀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주도성이 충만한 원형구조의 공동체는 어떤 그림일까요?**

**니콜라오 수녀 :** 원형구조는 다원화 사회에서 각자 주장하는 것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공동체로 모으는 구조라고 봐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흑백논리가 아니라 각자의 의견이 다 존중되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구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는 힘과 흩어지는 힘, 곧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원형구조라기보다 오히려 구형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롭지 않으면 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주도성이 흩어지는 힘인 원심력이라면 공동체성은 모이는 힘인 구심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리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조화로운 것. 함께 가는 것, 함께 소통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형구조의 이상이면서도 핵심이겠지요.



**마리루나 수녀 :** 가끔 그런 것을 나 자신이나 타인에게서 봐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이는 공동체적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각자가 리더로서 원형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로워야 하겠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것을 숙고하고 식별할 때, 나에게 필요한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선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자기양성계획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내 양성만이 아니라 수도회 전체 양성에 필요한 부분에 내가 같이 간다는 의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총회는 이전의 총회들과 비교하여 전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의안은 대의원제도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총회의 전 과정에 전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니콜라오 수녀 :** 200명 이상이 모여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대의원 제도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그리고 총회 주제나 방향 또한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부터 총회 준비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기초로 하는 지역모임에서 의견을 필터링해서 모으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전 회원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할 때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요. 이것 또한 우리가 총회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전 회원이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열어놓은 장에 실제로 참여하는 적극성과 실천도 꼭 강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차츰 총회의 전 과정에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있었지만 지면의 부족으로 다 실을 수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질문에 응답해주신 니콜라오 수녀님, 질문을 보내주신 의정부관구 유기서약자 수녀님들, 감사합니다.



## 아래로 가는 길

예수,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셨으니, 당신들도 내리시오, 내리시오, 강생하시오!



# 천주님 앞에서 다시보자, 안녕 - 아버지 성신부

## 꿈을 식별해가는 피에르 생제와 딸들

박 루디빈 수녀 엮음

매년 2월이 되면 모든 소비녀들은 영적 아버지의 유언을 듣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아버지 얼굴도 뵙지 못한 딸들도 있고,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적 딸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읽어 내려갑니다. 험한 세상에 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는 자식들 걱정애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써내려 갑니다. 제발 모든 딸들이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정성스러운 단어와 문장을 마음에 담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2월은 '딸 바보' 아버지의 사랑의 달이 됩니다. '딸 바보' 아버지의 사랑을 먹으며 자란 영적 딸들은 반대로 '아버지 바보' 딸들이 되어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들은 1년 내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당신이 하느님 앞에 가기 전 딸들에게 남긴 애뜻한 말들을 딸들은 삶의 방향의 지표로 삼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매년 '아버지 바보' 딸들은 아버지를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뵙습니다.



### 열심 중에 살으시오

소비녀들은 천주님 앞에 매일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은 아버지와 소비녀들의 간절한 바람이며 그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듯, 소비녀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아버지 성신부님을 만납니다.

학생 수녀 공동체는 설립자 신부님의 꿈을 떠올려 보며 이 시대의 소비녀로서 어떤 꿈을 이어나갈지 고려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희망을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꿈을 떠올리다 : 백동에서 조그만 옛날 집을 샀습니다. 1943년 성모 마리아 무염시태 침례 가까워서 여자를 불렀어. 또 내가 그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천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성교회하고 갈라지면 꿈 뿐이오.

쓸 데 없어./ 혼자 일 많이 못한다./ 또 혼자 있으면 유감에 빠지고 성소 버리기 쉽다. 성성하고 싶으면 다 함께 해야지. 그러면 함께 살아야 되겠어.... 우리는 힘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원에 갈 수 없으니 수도원 하나 시작하자.”







**꿈을 꾸다** : 그때 누구나 다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 부상자, 굶주리고 헐벗은 고아가 생길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성가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인의 뜻뿐입니다. 성가 소비녀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나 미래나 성가회의 목적은 그 뿐입니다. 우리수도자들이 할 일이란 그런 세속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는 것 대신 더 큰 애덕행위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며 그 사람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여주어 그들 스스로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속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수도자들이 하면 어떠할까요?

**꿈을 잇다** :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수녀원에서, 공동체에서, 나에게서 이뤄 나갈 꿈을 어둠이 있는 곳에만 사람씩 표현합니다. 앞서 사람의 꿈에 이어 나의 꿈을 표현합니다. 영똥하여도 좋습니다. 점으로 표현하여도

되고 떠오르는 것을 앞서사람에 이어 꿈을 그립니다. 이렇게 함께 꿈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꿈을 꾸지만 하나가 되어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 개개인이 어떤 꿈을 꾸어도 괜찮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다른 사람의 꿈도 함께 보고 존중하면서 나의 꿈을 식별해 갈 때 나와 공동체의 꿈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진다는 신비를 깨달았다.
- 나의 꿈만이 아니라 워크샵에 참석하여 작업하면서 나도 모르게 남의 꿈을 어둠에 갇히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남의 꿈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함을 느꼈다.
- 성신부님의 '꿈'을 생각해보고, 워크샵을 참석하고 작업을 하면서 '꿈'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

게 되었다.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꾸어 온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이 머물면서 다시 한번 나의 '꿈'의 여정들을 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

### 서로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도와주시오

선교사로서의 성신부님의 삶은 언제나 '그분'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신부님의 자취는 지역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소비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행적을 하나하나 따라가 봅니다. 시간이 지나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어도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그 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터에서 아버지의 영성을 만난 소비녀들도 그렇게 그 삶에 물들어 갑니다.

관구본원은 네 팀으로 나누어 신부님의 자취를 찾아 나섰습니다. 솔비, 함덕, 논산, 인천, 해화동 등 곳곳으로 신부님의 향기를 맡기 위해 자매 수녀님들과 즐거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 순례지마다 신부님의 책자, 자료를 함께 읽으며 순례를 하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함께 한 수녀님들과도 여유로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 설립자의 삶이 나의 수도생활 안에 녹아들도록 살아야 할 과제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



- 성신부님께서 겸손하게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자랑스러웠다. 우리도 본받아서 열심 중에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쉼뿔여고 수녀님이 반겨주어 감사했고, 대건고등학교에서 설립자가 아님에도 신부님 흉상과 업적을 세워 놓은 것, 그리고 역사박물관의 자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 제물진두성지에서 해설을 들으며 답동성당의 유래를 알 수 있었다. 성지 벽에 걸려있는 성화 안에 표현된 답동성당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활동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성신부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 성 신부님께서 언어 공부를 마치시고 첫 부임지라는 곳에 감회가 새로웠다. 그리고 성당 마당에 들어섰을 때 성가정상이 모셔져 있어 다른 분위기로 다가왔고 성신부님이 수도회 설립시 성가정을 주보성인으로 모신 것에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 강한 이미지로 각인 되었다. 처음 가 본 함덕성당이었지만 낯설지가 않았고 친밀감이 있어



신부님의 발자취를 느끼고 신부님을 뵙는듯하여 인상 깊은 성당이였다.

제주지역은 육지로 나오기 어려운 위치이기에 그 곳에서 선교사의 삶과 순교자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성지순례 후 신부님의 삶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의 소비녀들은 성김대건 신부님께서 표류중 최초로 표착한 용수성지와 모슬포 대정성지(정난주 마리아의 묘)를 순례하였습니다.

물론 나오지 못한 백령분원은 북한의 장산곶이 보이는 두무진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 곳에서 선교사로 파견되어 오신 성신부님의 삶을 묵상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성가요양원에서는 함께 모여 성신부님의 영상을 보며 신부님의 삶을 묵상하고 미사를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찾아다녀도 좋은 시간이겠지만, 그 날이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은 아마도 내 옆에 소중한 자매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 주는 우리의 동반자 언니, 동생 수녀님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와 묵상을 통해 성신부님이 간절히 바란 하느님과의 일치를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서로 시간을 맞추어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여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설립자 신부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는 원의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가난함과 가난한자,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시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못본척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필요로 한 것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함께 지내며,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정신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소비녀들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딸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백방으로 뛰어다녀봅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기 때문입니다.

성가어린이집 분원에서는 성재덕의 날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아픔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요구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하루 동안 참석하여 세월호 특별법개정, 특검의결, 세월호 선체조사,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연대하였습니다.

- 하루 온종일 기도와 단식으로 세월호 가족의 아픔에 몸과 마음으로 깊이 동참하면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하면서 설립자 신부님께 전구를 구하는 시간이였다.





- 예수님과 설립자의 시선과 마음으로 가장 절박한 현장에서 연민을 기도로, 활동을 연대로 실천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 꿈과 세월호 진실규명의 희망을 구하는 하루였다.

수원지역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좋고 우리 수도회의 첫 시도인 생태공동체의 분원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기에 꿈을 식별해간다는 의미가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는지 고민 끝에 동네에 그냥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함께 수거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친구자이신 성모님! “꿈을 식별해 가는 빼에르 생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소비녀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9월은 순교자성월이기도 합니다. 저희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모임입니다. 설립자 성제덕 베드로 신부님을 기리고 저희가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피를 흘리신 순교자들의 얼을 본받아 오늘 하는 선행이 저희와 주변에 작은 불꽃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성모상 앞에서 말씀의 전례 기도문이 마음에 다가왔다. 지역사회에 작은 증거의 행동의 날이 되게 해달라는...,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자연보호에 나서는 마음이 기쁨 가득해졌다.

- 오늘 쓰레기 줍는데 공동체가 함께 해서 좋은 모습으로 느꼈다. 버리는 문화가 줄어야 한다. 지구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기주의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 삶의 여정에서도 쉽게 버려졌던 나의 삶의 쓰레기를 줍는 마음으로 시간을 봉헌했다. 그리고 소비주의가 편리하게 만드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다보니 쉽게 쓰레기들을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교육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범적 잘 공경하시오

광주지역, 인천, 청주, 부천지역의 소비녀들은 의미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피 내포 교회사연구를 하는 김정환 요한 신부님으로부터 페렝 백문필 필립보 신부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페렝 신부님의 보좌로 우리 성신부님께서 소임을 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페렝 신부님의 삶을 들어보니 성신부님의 영성은 페렝 신부님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본보기의 선교사 신부님을 모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그렇게 딸들에게도 자신이 배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 성신부님이 구함덕성당 첫 보좌 시절 주임신부님으로 계시던 백 필립보의 영성과 사목 방침에 많이 영향을 받으셨다. 후에 성신부님이 혜화동주임으로 계실 때 백 필립보 신부님으로부터 배운 사목방침을 많이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 좋은 모습을 보면 닮고 싶어지듯이 우리도 성신부님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 열심히 살 듯, 신부님들과 수도자의 좋은 모습을 보면 신자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성신부님의 직접적인 강의는 아니었지만, 우리 신부님에게 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이렇게 소비녀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영적 유산을 잘 간직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홀로 세상에 남겨둔 딸들을 위해 사랑의 당부를 하나하나 잊지 않으신 아버지의 말씀을 딸들은 기도로, 삶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성신부님께서 지켜내고자 했던 영성과 보여주셨던 사랑의 삶인 아버지의 그 큰 꿈을 우리 소비녀들은 함께 이어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천주님 앞에서 꼭 만나 뵈고 아버지의 그 꿈을 이어갔다고, 지켜냈다고 그리고 함께했다고 자랑스레 말하고 싶습니다.







# 성가소비녀들의 아주 특별한 전례

의정부관구 양성소 엮음



“이 성무일도서를 받아 매일 정성되이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는 것이 천사와 사람의 본분입니다.”  
착복식 날, 새 성무일도서를 받으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는 본분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차츰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눈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어느덧 타성에 젖어 느껴지고 낮아지고 건조해져서 천사들의 목소리와 함께 하느님께 바쳐질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례가 생명력 넘치는 기도가 될 것인가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공동체에 의미 있는 날에는 특별히 준비한 기도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 관구본원에서 전례에 활기와 기쁨을 더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바쳤던 기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1.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하는 생명평화 저녁기도

2015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발표된 해입니다. 그해 10월 4일 프란치스코 축일에 의정부 관구본원이 위치한 시골 마을의 특성을 살려 특별한 저녁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가을빛에 물든 우고리 산천과 곡식이 익어가는 황금 들판, 그 안에 소비녀들이 모여 살면서 닭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텃밭과 동네에서 빌린 밭에 농사도 짓습니다. 돌아보면 온통 찬미 받아야 할 환경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축복하고 찬미하는 저녁기도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 제1부 : 축복

우리에게 공동의 집, 지구를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흙과 물과 산,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어루만 지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찬미 받으소서.

오늘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가 나누는 애정의 역사가 전개되는 공간인 이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 축복과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리도 어머니인 땅과 자매인 해와 달과 별들, 형제인 바람과 공기, 물과 불, 모든 풀과 꽃과 나무들, 동물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공동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의 인사와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고리의 산과 들과 수녀원 정원의 꽃과 풀과 나무, 다음으로 우리의 동물가족인 동이, 안또, 고양이 삼남매 해님이 달님이 별님이, 그리고 닭님이, 마지막으로 소비녀 공동체를 축복하겠습니다.

### 성호경 노래

**대자연 축복** (우고리의 산과 들, 수녀원 정원의 꽃과 풀과 나무 축복)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대자연을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성가소비녀회 의 정부관구가 우고리로 들어와 자리 잡은 지난 2012년부터 소비녀들의 기도소리, 발자국 소

리, 웃음소리 들으며 소비녀들의 손길로 곱게 가꾸어진 수녀원 정원의 풀과 나무와 꽃들을 축복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도자 : 온 누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의 어머니요 자매인 산과 들과 우리 정원의 풀과 나무와 꽃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 후 산과 들, 정원에 성수를 뿌린다)

**공동체 :** 폐제 노래2. 오-- 주를 찬미하나이다 (3번)

### 동물들 축복

 (우리 성가의 동물 가족 축복)

아기 때 우리 가족이 되어 이제는 흰칠한 청년이 된 동이와 안또, 닭장 지킴이 소임을 즐겁게 하고 있는 해님이 달님이 별님이 고양이 삼남매,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생태적인 닭장 공동체,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고리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축복하며 하느님께 찬미 드립니다.

**주도자 : 집집승과 들집승을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동물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 후 수녀님들이 데리고 있는 동물들에게 성수를 뿌린다)

**공동체 :** 오-- 주를 찬미하나이다 (3번)

**공동체 축복** (소비녀 공동체 축복)  
합심을 문장으로 강생의 소비녀들이 오순도순





한데 모여 살아가는 본원 공동체와 사도직 현장의 모든 소비녀 공동체, 우리의 직원 가족인 율리아노 실장님과 벨라지아 자매님, 소비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신비체 가족들을 축복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도자 :**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소비녀들을 통해 당신의 강생을 계속하시는 하느님, 본원 공동체와 성가소비녀회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 후 수녀님들에게 성수를 뿌린다)

**공동체 :** 오-- 주를 찬미하나이다 (3번)

**제2부 : 기도**

찬미가 : 청소년성가 259번 <태양의 찬가>

후렴 1 : 우리 공동의 집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입니다.

시편 1 : 떼제성가 <찬미하여라>

후렴 2 :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 그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2 : 교황 프란치스코의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후렴 3 : 지구의 부르짖음과 /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3 : 청소년성가 250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독서 : 회칙 <찬미받으소서>

**성모의 노래**

**청원기도 :** 성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과 함께 당신을 찬미하게 하신 주님, 생명과 평화의 창조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의 기도를 귀여겨들어 주소서.

- 1. 창조질서 회복을 위하여
- 2. 세계평화를 위하여
- 3.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 4. 축일 맞은 수녀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

**본기도**

성 프란치스코를 통해 찬미를 받으신 하느님, 저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아야 하는 소명을 느끼며 생명을 살리는 소비녀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설립자를 기억하는 전례**

해마다 맞는 설립자 기일에 그저 미사 지향만 놓고, 유언서를 읽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좀 더 설립자 신부님의 정신과 삶을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성 신부님의 말씀으로 엮은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설립자 성 신부님을 기억하는 아침기도**

찬미가 : 오헤 베드로

오헤 오헤 베드로, 무서움을 타지마라

오헤 오헤 베드로, 무서움을 타지마라

1. 그 전에 젊은 뱃사공, 그 전에 젊은 뱃사공  
처음으로 배 배 배를 탔네, 처음으로 배 배 배를 탔네 오헤 오헤

2. 여름 하루의 아침에, 여름 하루의 아침에  
멀리 가서 태 태 태평양까지, 멀리 가서 태 태 태평양까지 오헤 오헤

3. 한국 땅에 도착해, 한국 땅에 도착해  
선교사로 백 백 백동에 갔네, 선교사로 백 백 백동에 갔네 오헤 오헤

4. 가난한 이를 만났네, 가난한 이를 만났네  
예수처럼 사 사 사랑해야지, 예수처럼 사 사 사랑해야지 오헤 오헤

5. 루시야를 불렀네, 발바라도 불렀네  
소비녀야 해 해 해 보시오, 소비녀야 해 해 해 보시오 오헤 오헤

6. 기뻐하라 소비녀, 기뻐하라 소비녀.  
거리에서 함 함 함하게 하시오, 거기에는 예 예 예수가 있소

오헤 오헤 베드로, 무서움을 타지마라

오헤 오헤 베드로, 무서움을 타지마라

후렴 1 : 네 고장과 / 네 가족, 네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 내가 일러주는 고장으로 가거라.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 속에 떠나라.

시편 1 : 선교사로 떠나다

젊은 선교사 파견의 순간 (성재덕 신부 : 창립 60주년 기념자료 제2집, 13-14, 16)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은 \* 중요하고도 또한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 신앙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엄숙한 시간에 +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을 밝혀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꿈은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 간곡히 애원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파견 선교사들은 강한 인간이어야 하고, \* 성 교회의 제단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일하며, 고통 받고, 기도하며, \* 그 누구도 두려워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데에는 \* 휴식이라는 것은 없다.  
사랑이신 그 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 항상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렴 2: 사도의 역할로 / 충만케 하시오.+  
청빈과 노동 그리고 투쟁, 죽음, 바로 이것이 + 하느님께서 그 분의 병사들에게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입니다.

#### 시편 2. 하느님의 종 성재덕 신부

선교, 강생과 세상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 (파리외방전교회 문서 에피파니 제39호, 190쪽)

완벽하지 못함은 인간의 본질이다. + 누구라고 감히 자신은 완벽하게 성체를 영하고 \* 고향을 보고 기도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선교사의 삶은 + 우리 순교자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 모든 면에서 희생을 필요로 하는, + 즉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완벽한 자비의 행위이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열렬히 원한다. \* 비록 도달하기엔 불가능한 이 이상을 위해 + 나는 모든 것을 버렸고,  
하느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나가 있음으로써 \* 나름대로 이상을 완수하는 것이기에 + 나는 진정으로 선교사임을 느낀다.

후렴 3: “모든 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 곧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 왜냐하

면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서 + 하나의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유기체가 되기 때문이다.”

#### 시편 3. 열정의 선교사

선교, 강생과 세상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 (파리외방전교회 문서 에피파니 제39호, 190쪽)

내 사명은 그리스도의 보화인 + 이 아름다운 복음을 알리는 것임을 \* 나름대로 어떤 섬광처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내가 무언가 위대하고 아름답고 +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활동 중에서도 \* 가장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 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마룻바닥에 누워 잠들기 전에, \* 나에게 이 소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 수많은 이론가와 학자들이 그들의 머리로는 뿌려놓은 잡동사니들보다, + 훨씬 더 선교사다운 일이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성인들은 + 학자가 아니었고 \* 이 곳과 같은 작은 마을에서 + 단순한 일들을 완수해냈지만, 그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완수한 것이므로 \* 그 일을 함으로써 그분들은 + 강생과 세상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신 것이다.

그 기쁨은 무형의 돌을 가지고 멋진 석조물을 만들어내는 \* 조각가의 기쁨에 백배는 더 할 것이다.

그것은 선행의 기쁨이며, \*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아신다.

그것은 하느님 은총을 나누어주는 기쁨이며,

\* 그것은 천지만물의 기쁨이다.

성경소구: 현대사회와 수도생활에서 발췌  
성모의 노래/청원기도/주님의 기도/본기도

### 설립자 성 신부님과 함께하는 저녁 기도

찬미가: 새로운 강생

후렴 1: 예수 / 하늘에서 땅에 내리셨으니+ 소비녀들도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중에 내리시오, 강생하시오.

#### 시편 1: 영성과 사명

성가회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 강생정신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인간까지 강생하셨으니 \* 성가소비녀들도 예수를 따라서 강생해야 합니다.

예수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먹도록 \*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유를 + 그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성가소비녀의 성소는 바로 예수처럼 \* 자신을 낮추어 사랑을 내려 보내는 성소입니다. 말로만 소비녀가 되지 말고 \* 실질적으로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비녀가 되십시오.

하느님은 장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 도구는 장인의 곁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교만한 연장은 던져버리십니다. \* 그러나 진실한 도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성가정의 소비녀들은 \* 주님의 손에 착한 연장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은 종종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 \* 작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소비녀들이여! 해보십시오! \* 주님의 안배를 믿고 행동으로 옮기어 보십시오.

후렴 2: 너희 본 가족은 / 지금 성가 소비녀 들입니다.

#### 시편 2: 공동생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 성가회의 힘도

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동체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 저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합심은 너희의 문장입니다. \*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 행복입니다.

서로에게 봉사합니다. \* 그리고 이 봉사한 것을 계산하지 맙시다.

여러분과 같이 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결점이 있어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됩니다. \* 견디어 냅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견디어 내지 않으십니까?

내 형제가 완전하지 않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 오로지 하느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후렴3: 기도하는 것은 / 이 세상에, 우리 주 위에, 우리 안에 +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 시편3: 기도생활

열심 중에 살으시오, 마음부터 열심치 않으시면 \* 수도생활 절대 헛된 일이며 또 위선한 일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주님과 항상 친하게 지내는 일이니 \*날마다 묵상시간에 천주님과 대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귀 기울이고 \*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

을 버리고 +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작업이므로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해야 됩니다. + 연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도구가 되려면 노력해야만 합니다. \* 매일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오 주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오주예수로 인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 고통을 횡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소구: 설립자 성재덕 신부 유언

응 송: 기뻐하라 소비녀

### 성모의 노래

### 주님의 기도

### 본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사제 성재덕 베드로를 통하여 소비녀들을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강생을 계속하도록 이끌어주십에 감사드립니다. 사제 성재덕 베드로는 당신 사랑에 대한 영감으로 소비녀들의 성소를 이끌어 주었나이다. 그의 소명과 삶을 기억하시어 사제 성재덕 베드로를 성인들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는 설립자의 영적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합심하여 성장시켜 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들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3. 고유하고 창조적인 전례들

2016년 5월 젊은이들의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집을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성가소비녀회의 특성과 고유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화는 무엇일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성체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톱밥 그림 그리기부터 성체거동까지 그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 설립자 신부님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유산인 성체거동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대단히 매력적이고 큰 울림을 주는 체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체거동은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던 전례를 길 위로 확장시킨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강생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설립자가 이토록 앞서가시는 분임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15년 12월 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신 자비의 회년 시작 전례를 우리나라대로 준비해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소비녀들이 만든 양을 어깨에 맨 신부님과 함께 행렬을 하고, 성당 입구를 자비의 문으로 축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사가 끝나면 그 문을 통과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또 세상에 자비의 사도로 파견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전례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시간, 십자가의 길, 대림 말씀의 전례 등을 통해 지금 가장 고통 받는 이웃들, 세상의 절박한 곳의 어둡고 불의한 현실, 그 안에서 아파하는 이들의 절망과 상처를 우리의 전례 안으로 품어 안는 시간으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 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



### 4.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는 하느님

우리가 살고 있는 양주 일대에는 많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분들을 위한 미사에 참석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미사가 무척 생동감 넘치고 흥겹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미사를 하고 돌아온 다음날 아침. 우리의 미사는 왜 그리도 무겁고 경직되고 근엄한 느낌이든지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갈릴래아의 호숫가와 산과 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분이라면 아마 지금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저 위에 계시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어깨를 열싸안고 우리와 눈을 맞추어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세상의 아픔과 눈물, 상처와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하고 고민하며, 희망하고 꿈꾸며, 전례가 끝나면 또한 우리와 함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세상 속으로 힘차게 걸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그런 신명나는 기도와 전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이 필요하신 수녀님들께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경험하시고 싶으신 수녀님,  
땀을 흘리고 싶으신 수녀님,  
자연식사를 맛보고 싶으신 수녀님,  
집안에서 무조건 쉬고 싶으신 수녀님,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본문 중에서)



JPIC양성학교 모듬연구

# JPIC 사무국을 소개합니다

이 다비드 수녀

JPIC사무국은 15차 총회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하느님 창조질서 회복 - 강생의 예언적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수도회의 전체 영성과 사명 실현을 위한 국내외 조직적 차원의 새로운 기구 필요성을 절감하여 발족하였습니다.

총장 직속기구로, 담당평의원 강 디모테오 수녀, 실무자 이 다비드 수녀, 이 나타나엘 수녀가 소임을 받아 2014년 9월부터 준비하여, 2015년 3월 20일 JPIC에 관한 전 회원 연수와 함께 발족된 것이지요. 하지만 JPIC 사무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궁금해 하는 수녀님들이 계시기에 친절(?)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조금은 거창한 것 같지만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와 자료수집 및 제공 : 한국과 세계교회(문헌, 가르침), 국제동향- JPIC와 연관된 현재 사건들, 이슈, 다양한 정보와 Net-Work

- (2) 나눔 : 교회와 수도회간, 평신도단체, 해외선교지원, 국내외 NGO단체들과의 협력, 연대
- (3) 양성 : JPIC 교육, 복음과 현장 렉시오, 참여를 위한 성찰과 식별, 다양한 워크숍 추진
- (4) 행동 : 지구생태계와 고통 받는 인류를 향한 깊은 연민, 행동으로 나아가는 촉진과 캠페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

이러한 4가지 기능이 아직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 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JPIC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소식과 정보, 활동 등을 공유하고 있으니 가끔씩 JPIC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지난 2년 여 동안 사무국은 JPIC 교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JPIC 양성학교와 <소비녀JPIC>입니다. 잠시 소개를 하면요...

## JPIC 양성학교

JPIC 양성학교는 지구, 공동의 집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바꾸어 나가는데 꿈과 열정을 지닌 수도자와 가톨릭 신앙인 양성을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2015년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수회 한국관구가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여, 현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기 모집을 시작으로 매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여자수도회 수녀 27명, 수사신부 1명, 평신도 5명 등 총 33명이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와 모듬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주제발표를 맡고, 나머지 모듬원은 교재를 읽고 교수가 제시한 논점을 메모 형식으로 준비하여 함께 토론하는 세미나 형식이지요. 모듬연구를 마친 후 주제발표자는 발표문을 정리하여 JPIC 홈페이지 모듬방에 올리고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합니다.

4학기동안 준비된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강의 과목	교수명
1학기	예수를 읽는 방법	박상훈 신부, 서강대
	사회교리와 복음의 기쁨	박동호 신부, 가톨릭대
2학기	지구의 꿈	맹영선, 고려대/수도자신학원
	세상을 읽는 방법	조효제, 성공회대
3학기	여성이 읽는 JPIC	정희진, 이화여대/서강대
	인권의 지평	조효제, 성공회대
4학기	폭력을 넘어서 평화	이대훈, 성공회대
	지구, 공동의 집에서 살아가기	조현철 신부, 서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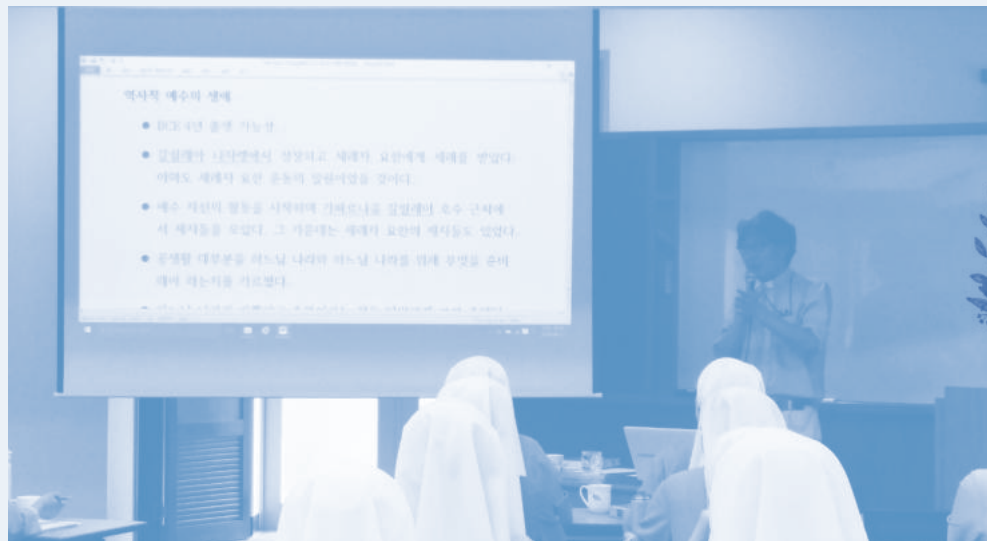
1년 과정을 마친 후,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판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내면화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1기 참여자들의 중간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실천과 신앙의 헌신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려면 졸업 이후의 후속 심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운영위원 평가도 있었어요.

이러한 요청에 따라 JPIC의 우선적인 과제를 실행하는 모임이나 운동을 개발하거나, 졸업생들에게 JPIC 과제에 맞는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동문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틀에서 JPIC 양성학교가 각 수도회와 교구의 JPIC 담당자 워크숍 또는 JPIC 관련 세미나를 주관하는 것도 JPIC 양성학교 후속 심화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장기 계획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 소비녀JPIC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의 전망을 넓히고, JPIC 관점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2015년 연피정 때 <JPIC 학교> 신청을 했던 수녀님들을 중심으로 2016년 9월 첫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JPIC 양성학교와 명칭이 혼동되는 불편함이 있어 <JPIC 학교>에서 <소비녀JPIC>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소비녀JPIC>는 월 1회 1과목 강의와 2회 그룹토론을 하는 수업방식으로, 관심 있는



소비녀JPIC 강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올들의 투표”

이슈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실천”함을 강조합니다. 강의는 JPIC 양성학교와 같은 내용으로 하지만 양성학교보다는 느슨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수도자로서 세상을 읽어 내고, 그것이 나의 사도직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작업의 연속이지요. <소비녀JPIC>는 참여하는 수녀님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함께 평가를 하며 다음 학기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함께 만들어 가는 <소비녀 JPIC>!! 저도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JPIC 사무국은 총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 7월 클레멘스 수녀님과 디모테오 수녀님의 남미 분원방문을 기해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도 JPIC 사무국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각 분원의 모든 수녀님들이 함께 모여 JPIC 연수를 하며 사도직을 점검하고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상 JPIC 사무국의 친절(?) 안내를 마칩니다.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신** :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9개월간 JPIC 연수를 위해 미국에 파견되었던 이 나타나엘 수녀가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자리한 오블라피 선교 수도회 미국 관구 JPIC 사무국과 뉴욕 유엔 본부 가톨릭 수도회 NGO 실습이었지요. 수도



양성학교 기말과제 발표



이나타나엘\_ 뉴욕 유엔본부NGO실습

회 내 JPIC 역사가 20~30 년 이상인 국제 수도회들의 사목 현장과 정신을 가까이서 체험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수도회원간, 타수도회, 타종교는 물론 세상과 연대의 차원과 깊이를 확장, 심화해가며 정의와 평화, 하느님 창조 질서 보전을 우리 수도생활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듯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양한 실습과 만남 안에서 새롭게 눈을 떴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 성가소비녀회가 73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쇄신을 시도하고 추구해온 역동성 안에서 JPIC가 뿌리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그 희망의 씨앗인 수녀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느꼈다고 하니,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수녀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어가리라 기대합니다.



## “우리집에 놀러오세요”

용문 나자렛집 생태공동체 / 박 자캐오 수녀



수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64회 박자캐오 수녀입니다. 2014년 풀무전공부를 졸업하여 도창동 분원을 거쳐 이곳 용문 나자렛집에 소임을 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저희 용문 나자렛집 수녀원이 소개가 되어 기쁘고 생태공동체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을 수녀님들께 들려주려하니 설레기도 합니다.

2013년 10월 첫 생태모임을 시작하여 첫 결실인 2014년 이곳 용문 나자렛집이 생태공동체

로 첫 출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015년 5명 모두 지원하는 수녀님들로 구성되면서 2017년 현재 까지 생태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하고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동체는 조 테레지나 수녀, 이 레나 수녀, 장 필립보네리 수녀, 백 엠마 수녀, 박 자캐오 수녀가 함께 살며 ‘하느님의 창조물인 생태계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농사로는 순환농법(돌려짓기(윤작), 섞어짓기, 퇴비 만들어 사용)으로 토종씨들을 채종하고 가



JPIC 양성학교 1학기를 마치며..



꾸며 자급자족을 지향하기에 채소류, 목나물, 양념류(고추, 마늘, 파 등등), 잡곡류(수수, 조, 콩, 호밀 등)를 자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차원과 연구, 연대, 교육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생태공동체하면 '농사'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24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노동은 5시간 정도이나 쌀쌀할 때와 더울 때에는 수녀님들의 컨디션에 맞게 노동을 하고있습니다. 휴무는 이틀이고 교육이나 연대해야할 경우에는 가능한 참석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실행, 농한기에는 성경 통독 및 독서를 합니다. 이리하기에 '農'하는 공동체라는 인식보다는 '農'도 겸하고 있는 공동체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생태하면 생태적 생활양식과 자급자족이 빠질 수 없기에 첫 번째로 저희 밭을 소개합니다.

### 우리밭 모양 및 설명

농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힘들다.'입니다. 피약벌에 푹푹찌고 습한 날에 풀을 뽑는다고 상상할 때 수녀님들 어떠하세요? 또 해마다 밭에 심을 작

물에 대하여 무계획이라면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본인도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밭을 구분하였습니다. 돌려짓기를 하는 것인데요, 돌려짓기(윤작)란 작물의 종류를 차례로 바꾸어 주어 몇 년을 거른 다음에 같은 장소에 다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이 돌려짓기를 함으로써 종자나 뿌리로 번식하는 잡초나 병균들을 막거나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번 정원텃밭에는 틀두둑(하트, 직사각형, 세모 등)을 만들었습니다. 2평~10평의 다양한 평수로 나무판자나 방부목, 벽돌, 돌들을 이용하여 두둑을 만들었지요. 틀두둑의 좋은점은 두둑이 무너질 염려가 없어서 밭모양이 유지되고 물빠짐이 좋습니다. 두둑 위에 나뭇잎이나 마른풀이나 부산물(땅콩껍질, 콩깍지, 들깨껍질 등)로 멀칭(위에 덮는 것)을 하게 되면 습도유지와 풀도 덜 나오게 합니다. 꾸준히 이 틀두둑 위에 멀칭을 하게 되면 마치 산속에 들어가면 밭이 기분 좋게 푹푹 들어가는 것처럼 폭신한 토양이 만들어져 호미나 삽을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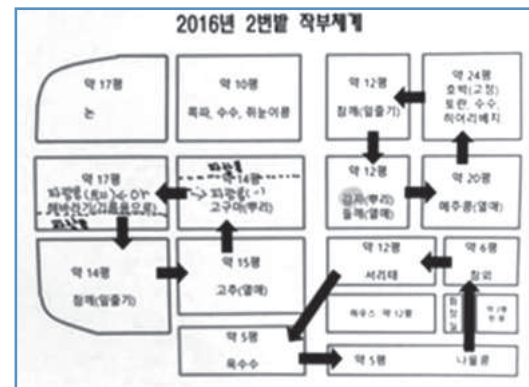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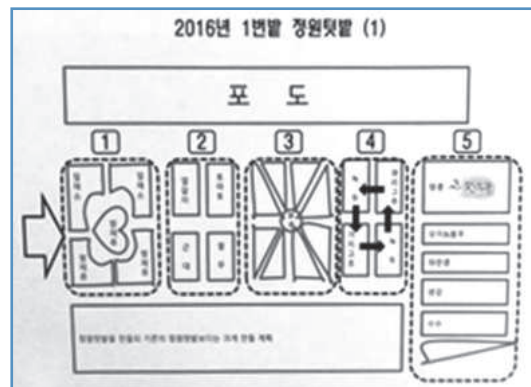
니다. 그리고 이 1번 정원텃밭은 섞어짓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추와 한려화를 섞어 심거나 고추와 땅콩을 함께 심는 방법입니다. 작은 평수에 섞어짓기를 함으로써 서로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2번 밭은 1번 정원텃밭보다는 규모가 큼니다. 15평~20평 남짓으로 구획(틀두둑은 하지 않고 부직포로 지나가는 길만 만들었음)을 만들어 돌려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구마(뿌리/메꽃과)-->고추(열매/가지과)-->들깨(열매/꽃풀과)-->해바라기(열매/국화과) 다시 고구마 순으로 해마다 돌려가며 심기로 했습니다. 고추는 퇴비를 많이 주어야하는 작물입니다. 저희는 퇴비를, 음식물찌꺼기, 소변, 인분, 낙엽, 풀, 쌀겨, 톱밥 등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어 고추처럼 퇴비를 좋아하는 작물에게 (순전히 감으로) 밥(퇴비)을 줍니다. 건강한 퇴비이기에 작물도 건강하여 토마토, 오이, 상추의 아삭한 맛이 시중에 파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삭한 맛을 느끼시려면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또한 저희 밭에 논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5월에 논을 만들어 4종류의 토종벼를 심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아니지만 약 17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1/3은 참새들의 먹이로 주었고

2/3인 18.5Kg를 도정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풀무전공부에서 벼 종자를 얻어와 학교에서 배운대로 모판에 모를 부어 길러 6월 9일에 수녀님들과 함께 못줄을 잡아 모내기를 하였고 9월 23일 누렇게 익은 벼에 낫을 데었답니다. 단을 묶어 논에서 며칠을 말린 후 콤바인을 이용, 탈곡하여 25Kg 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하게 얻은 쌀을 본원과 주위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특히 10월 10일 수원지구 총회모임 때 저희 쌀로 밥을 지어드렸답니다. 맛있게 드셔 주셨고 칭찬해 주신 수녀님들 덕분에 그날 으쓱한 날이었지요.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벼를 생산하여 "우리 수도회 공동체 수녀님들께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 한가지, 저희집에서는 토종닭과 오골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로 계란과 고기를 먹을 수 있기에 키우게 되었고 닭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흰순, 갈순, 회순, 검은검순, 장식(수탉), 갈식, ...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니 수녀님들과의 대화도 닭의 행동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닭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쳐놓았으나 막상 이름있는 닭들을 잡으려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웠지요. 걱정이 산이 되려는 찰라 집에 키우는 복돌이(개 이름)와 복순이(유기견 보호)가 몇 마리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닭장, 닭도리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부화된 닭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밭 전체 작부체계도

### 생활양식 중 에너지 측면

3년 전에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여 따뜻한 물을 감사히 잘 사용하고 있고 밖에 화덕을 만들어 나무를 데치거나 감자를 쪄 먹을 때, 고구마 조청도 만들어 화덕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잔가지, 깻단, 밤나무 장작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에너지 차원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큰 고민이 난방이었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비오는 날에는 경당에 빗물이 세는 현상으로 고민일 커갈 무렵, 작년 초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적정기술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차원으로 2016년 12월 중순경에 경당과 식당 벽면에 단열을 하고 난로 겸 긴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나무 사용량을 기록해 보았더니 약 12~15Kg(가장 추운날 기준) 정도면 하루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올 봄 각 방에도 난방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용문하면 추운 곳으로 인식되었던 저희 집이 따뜻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동체 회의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모여 그 주간에 해야 할 것과 각 수녀님들의 스케줄 및 계획한 일들을 평가 합니다. 이 공동체 회의를 통하여 진솔하게 평가를 하고 갈등과 고민들을 나누어 조금씩 성숙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책임자 순환제(1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중으로 농사와 책임자를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자와 농사담당자를 분리

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순환제이기에 책임의식을 갖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멀어도 회원 부모님들의 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멀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럴 때 일수록 함께 기도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공동체 수녀님들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농사 부분에서는 토종씨앗을 채종, 보관, 홍보,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의 비전을 본다면 더욱 확장해 나아가야 할 일하기에 자부심이 큼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연구, 연대, 교육입니다. 한 달에 책 한권 이상 읽고 나눔은 필수이고 연대(집회, 미사)해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그곳이 1차, 교육에서도 농사·피정·어린이·어른교육 등 다양한 계획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우리 공동체 수녀님들의 장,단기 계획

우리 수녀님들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들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을 듯하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들이 앞으로 공동체 회의를 통하여 세밀화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의 경



난로 설치(경당과 식당)



험은 없으나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우리 공동체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투른 몸으로 익혀가는 농사이지만 현재 우리 수녀님들로 하여금 용문 나자렛집의 훌륭한 비전들이 나올 것입니다.

딸나무 지급(도토리 나무 등 집안에 있는 나무를 일부 베어내고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 난로용 나무로 보충한다.) / 공동체 멤버들이 파종, 채종에 익숙해지도록 실력을 쌓는다. /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본 공동체에 머물며 체험을 하도록 한다. / 자연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공부, 연구, 연대를 지속적으로 한다. / 토종씨앗의 중요성 알리기 / 토종종자 증식 / 토종씨앗 나누기 / 장기계획-씨앗도서관 만들기

###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그리고 생태공동체에 지원해 주세요.

쉽이 필요하신 수녀님들께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경험하시고 싶으신 수녀님, 맘을 흘리고 싶으신 수녀님,

자연식사를 맛보고 싶으신 수녀님, 집안에서 무조건 쉬고 싶으신 수녀님, 관구가 다르다고 수도회가 다르다고 오시길 꺼려하시는 수녀님!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생태공동체하면 농사만 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물론 땅이 있기에 작물들을 키우고 거둬들이기는 하나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나는 생태공동체를 지원하고 싶으나 몸이 아파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포기하겠어!'가 아니라 '아하! 나는 몸이 아파 농사는 많이 도울 수 없으나 음식은 곧잘 하니 음식으로 생태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 교육 쪽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겁내지 마시고 생태공동체에 지원해 주세요.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 용문 나자렛집 생태공동체가 우리 수도회와 회원들에게 수도생활의 새로운 도전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 창세 1,31 -

밀양농원 각 아나뎌님 수녀

처음 소비녀들이 밀양 이곳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예수님의 내리심’이었다고 봅니다. 방 한 칸으로 보금자리를 삼았던 감물생태학습관에서의 시작. 동반하는 수녀님과 방귀를 트기 전까지 어색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것은 잠시뿐. 아궁이 불 지피는 온돌방이 있는 시골집을 얻어 나오면서 소비녀들의 내림의 삶은 도전이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산다는 것. 환경을 지키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먹거리를 살리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어려운 것 또한 아



니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자연은 보답하고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한정이었습니다. 딸감도 주고 봄이면 진달래로 어디에도 없는 진달래 샌드위치도 먹게끔 하고 산딸기, 복분자로 잼도 만들어 먹고 쑥, 냉이로 한 끼 국거리로 내어주고... 이런 자연을, 땅을 지켜야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말씀을 삶의 기초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산업문명과 환경생태계의 위기와 한계 속에서 생태와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생태농업으로 죽어가는 땅과 자연을 살리고, 오염된 먹거리를 되살려 위기의 인간생명들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농법과 생태적인 삶으로 자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존공생의 삶을 추구하여 생명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보시니 좋았다’하신 창조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집’을 실현해 나가야하는 소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물생태학습관에서 작년부터 감물생태농부학교를 함께 하면서 느껴졌던 많은 생각들이 이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만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물생태농부학교는 인간과 환경, 생태에 대한 이해와 위기, 그 대안인 생태농업과 관련된 교육과 실습을 합니다. 생태농업이란 기존의 “화학적인 공법으로 제작된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농





업을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고려하는 달리 말하자면 전체 생태계를 고려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인류가 탄생한 후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수 만 년 동안 인류가 행해왔던 농업이 바로 생태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농업은 생태계 자체의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연의 다양성(종자와 식물의 다양성, 동일한 재배지에서 같은 시기에 재배되는 작물의 다양성, 수분(受粉)을 하는 곤충이나 해충을 제거하는 곤충의 다양성,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병행하는 혼합 농업)에 기초하여 모두를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방식입니다. 이렇듯 파괴된 농촌생태계를 살리고 농작물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아주 기본이 되는 먹거리. 그 먹거리가 나오는 곳이 바로 땅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 중의 하나,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역할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어떤 누군가는 제게 묻습니다. “그곳에 환자들이 많냐?”고. “간호사로서 할 일이 많냐?”고. 그런 그들에게 저는 대답합니다. “여긴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일들이 많다.”고... 저는 제가 간호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온 어르신들이 이젠 홀로 언젠가 노인이 되어 들어와 살 자식들을 위해 집



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들의 하루는 외로움으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밤을 맞이 하시죠. 그들에겐 하루가 천년 같은 날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한글도 배우고, 한 끼라도 함께 나눠 드시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한글을 배워 어버이날 자식들의 편지 한 장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고마움의 편지를 먼저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어둡던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생기를 보았습니다. 보니 참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몇 되지 않는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학습관으로 달려옵니다. 손주에게 무엇이라도 가르치고 싶은 마을 어르신의 간절한 부탁으로 시작된 주말공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만하고 폭력적이고 감정조절, 통제가 되지 않았던 친구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넓은 공간이라 맘껏 놀기도 하고 다양한 만들기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들이 부정적으로 형성된 인성을 치유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감사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가축들에게 저의 손길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등이 찢겨 고름이 나는 염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갓 낳은 송아지, 어미 땀에 찰려 눈이 충혈 되어 계속 눈물 흘렸던 송아지 등 동물들의 불편함도 돌보아야 하는 해발300m의 오지 같은 시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잊힐 새라 긴 시간 허리동인 마음으로 지켜가고 계신 송전탑어르신들 등 사회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작은 촛불의 불씨도 늘 간직하게 됩니다.



학습관의 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 하면서 무농약으로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땅과 환경에 피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결코 쉬운 농사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확들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맛나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눌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였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촌해 사시는 봉사자들, 안전한 먹거리를 돌보는데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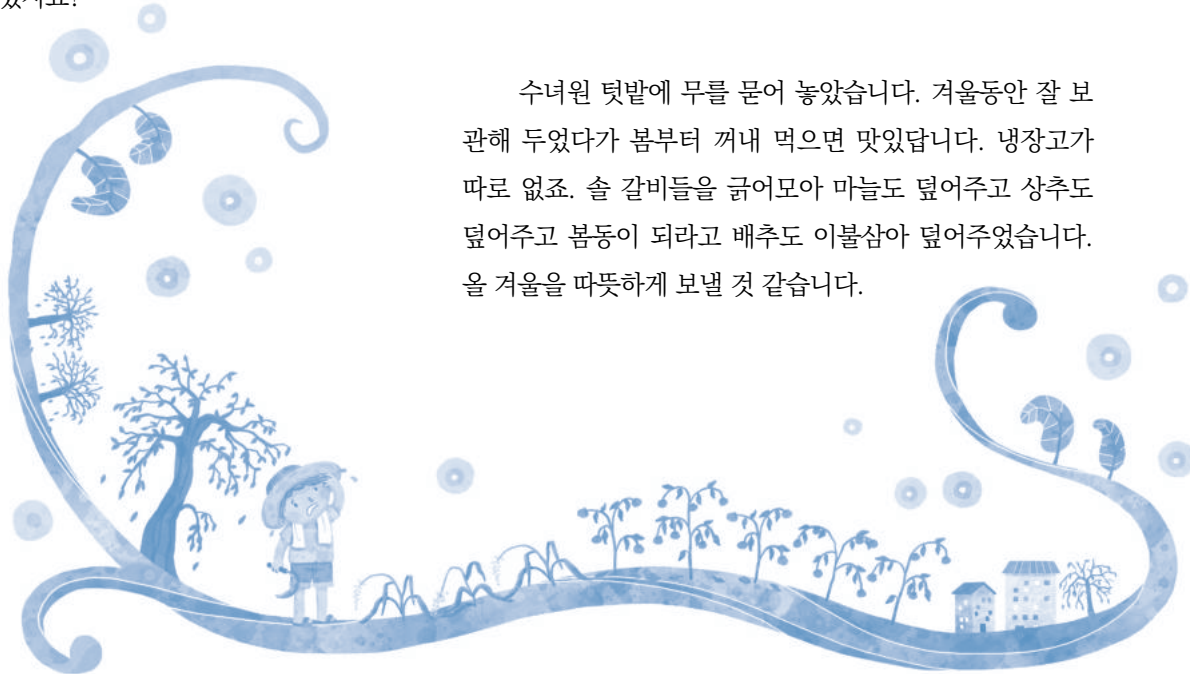
## 생명 그대로의 온전함을 위하여

김 마르셀 수녀

신의 노력을 하시는 학습관 직원들, 생태를 지켜가고자 노력하는 소비녀들, 신부님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그러기에 다양한 일과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경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확장 경험되면서 성장하는 공동체. 분명 교회가 살아야 할 또 하나의 바람직한 생태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학습관에서 이색강정을 만들어 판매를 했습니다. 손수 지은 수확물인 현미, 수수, 들깨, 비트, 썩, 허브(바질, 로즈마리..)등 10가지 맛의 강정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좋아 찾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이렇듯 꼭 이곳에서만 아니라 소비녀가 있는 곳이라면 간호사로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땅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노력하며 살다보면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날이 오겠지요?

수녀원 텃밭에 무를 묻어 놓았습니다. 겨울동안 잘 보관해 두었다가 봄부터 꺼내 먹으면 맛있답니다. 냉장고가 따로 없죠. 술 갈비들을 끓여모아 마늘도 덮어주고 상추도 덮어주고 봄동이 되라고 배추도 이불삼아 덮어주었습니다.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 이해할 수 없는 고통

2008년 종신서원을 한 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려는 열정과 의지가 가장 충만했던 시절, 오히려 나는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가톨릭대 음악과에 복학하여 졸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전신의 관절과 뼈에 염증이 번져버린 난치성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발목에 심한 염증 주머니가 생겨 걸어 다닐 수 없게 되더니 독한 약의 부작용으로 위장이 상해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어서 호르몬 조절이 안 되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서 이명까지 시작되었다. 이명이 심해지면서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 소리가 통증으로 전달되는 청각 과민증을 앓게 되자 이비인후과 의사는 점차 청신경 세포가 죽어가면서 청력을 잃게 될 테니 수화를 배워두라고까지 하였다. 점차 작은 소리도 큰 통증으로 느껴지다보니 공동체와 분리되면서 따로 밥 먹고 기도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30년 넘게 미사 반주를 하던 내가 오르간 소리를 피해 성당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벽을 보며 미사 드리는 마음은... 지금껏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음악’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과 희망 잃지 않게 힘을 주셨던 ‘하느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듯 하여 하루하루가 뜨거운 모래사막 위에 던져진 물고기의 심정으로 어둠만 가득한 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어 제 뭇을 못 하고 공동체에 폐만 끼치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다. 주변에서 이 모든 것을 희생으로 봉헌하며 기도하라는 말씀들은 이론으로만 다가왔을 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아무리 기도하고 물어보아도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나를 더 상하게 만들고 철저히 혼자 버려진 느낌은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했다. 이 상태에서 매일의 삶은 중심 잡을 막대기도 없이 홀로 외출타기 하듯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했다.

이제껏 신앙체험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며 원하는 것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다는 엘리트 의식으로 세상은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라 생각하며 살던 내 자신이었던... 이제는 패배자와 낙오자로 여기며 자기 비하 속에서 지내는 처지가 된 것이었다.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약해빠진 정신력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내면의 소리와 이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몇몇 수녀님들의 차가운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다.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 상태로 5~6년을 지내다보니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등이 당연한 것이 아닐, 모든 것이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신학자 로핑크의 ‘예수 마음 코칭’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곳,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곳, 자신을 내려놓는 그곳, 하느님께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만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곳, 바로 거기서만 일어날 수 있다. 끊임없는 죽음과 부활의 영역 바로 거기에서 비로소 하느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 그것은 고통 없이 희생 없이, 수난의 역사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대로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도 고통과 희생의 의미를 통찰하고 내 한계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의탁하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듣기까지는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의미

본원에서 도창동 농장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얼마를 지내던 중, 수도회의 배려로 청주 꽃마을 호스피스 휴양소에서 40일을 지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말기 암 상태로 죽음을 앞둔 분들과 함께 모든 병이 완치되어 건강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내게 새로운 소명으로 거듭나도록 이끄시고 계심을 느끼게 해 주셨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병이 나를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꽃마을에서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수도회 회원 순서에 따라 해외성지순례를 갈 수 있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내 체력이나 귀의 상태가 비행기

를 타고 해외 성지순례하기에는 무리가 될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합류하였다.

다행히 별 무리없이 보름간의 성지순례를 하면서 순례 내내 기적 같은 치유의 힘을 얻어 다시 미사 반주를 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길 간절히 기도했다. ‘혹시 순례 중에 드리는 미사에서 오르간 반주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였지만 끝까지 반주할 기회가 오지 않아 내심 실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 터키 어느 성당에서의 체험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주었다.

터키에서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난 후에 신부님께서 성당 2층에 800년 된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고 소개하며 한번 쳐보겠느냐고 하시는 것이었다. 신부님의 말씀에 무척이나 놀랍고 떨리는 마음으로 2층에 올라가 엄청난 먼지가 쌓인 오르간 건반을 보니 세계 놀러도 내려가지 않는 고장난 건반 투성이었다.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해 올겐을 누르자 우리 수녀님들은 반주에 맞추어 나의 치유를 위한 기도의 맘으로 소리 높여 성가를 부르셨다. 그 시간, 성당 밖에는 울려퍼지는 오르간 소리를 듣고 몰려 온 터키인들로 가득했다. 이슬람 국가에서 가톨릭 성당으로 모여든 터키인들과 함께 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터키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느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 절감할 수 있었다. 성지순례 내내, 유럽의 화려하고 웅장한 대성당에서 멋진 파이프 오르간을 치며 치유은사를 받는 상상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잊혀지고 버려진 듯한 낯은 오르간 앞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느



님을 만난 것이었다.

그 후 본원으로 돌아와 다시 전처럼 오르간을 칠 수 있게 되자 나보다 공동체 수녀님들이 얼마나 더 기뻐하였는지... 하느님을 찬미하는 작곡을 하고 반주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는 중에 관구장 수녀님의 권유로 한국모래놀이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래놀이상담사 교육을 받게 되었다. 비단 상담사 교육뿐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모래놀이상담사 1급 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기까지 4년 동안 분석심리, 발달심리, 정신병리, 꿈 분석, 모래 상자 해석, 성폭력 상담 등을 배우며 시험과 임상, 공개 사례발표, 슈퍼비전, 사례회의와 개별 교육 등의 많은 개별 작업을 요하는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영신 수련 때 비춰진 내 모습이 떠올랐는데 바로 ‘자폐아’의 모습이었다. 엄마가 아이의 얼굴을 감싸며 눈 한번 마주치고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어해도 자폐아는 고개를 돌린 채 자기 세계에 열중하여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내 모습처럼 느껴졌다. 이제껏 내 나



름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보여주신 자폐아의 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다.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청했었건... 그 여정이 이렇게 멀고도 긴 아픔의 체험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내 일생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봉헌한다는 것은 바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죽기까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닿아있는 은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 흥내를 내며 자기만족에 빠져 살았으니 이제 그 세계를 깨뜨리는 통증이 뒤따라야 했던 것이다.

나의 마음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 가까이에서 당신을 향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 듣고 되돌아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에 대한 기대와 이상이 너무 높아 스스로를 다그치며 힘들게 했고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볼 힘이 없어 안 그런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쓰며 자신을 포장하고 미화하며 살았었다. 껍데기를 벗고 하느님과 내 자신 앞에 솔직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끊임없이 의식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나를 본다.

### 모래놀이 상담 사도직

수도회에서 2014년 신설 사도직으로 시작한 『성가 모래놀이실』은 파괴된 가정과 사회 속에 절박해진 이들이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내 자신과 이웃의 상처를 동시에 싸매어주라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감사함으로 시작한 나의 소임지이다. 내 자신과 하느님과 이 세상에 대해 잘 몰랐기에 상처 입었고 오래도록 헤매다가 돌아온 내 자리에 대한 소중함이 가득한 곳이다.

아빠의 가정 폭력을 피해 여성쉼터에서 엄마와 숨어 지내는 30개월 된 유아, 부모를 죽이고 싶을 만큼 깊은 상처와 증오가 가득 한 초등학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워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가 약을 먹는 고등학생, 삶에 대한 무기력증으로 휴학중인 대학생, 병원에선 진단명을 찾을 수 없는 신체의 이상 증세로 고생하는 청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아이를 돌볼 수 없어 괴로워하는 어머니, 직장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남성, 공허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우울증을 앓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 아픈 이웃들을 만나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어 감정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듯 자신을 속이며 살던 이들이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무너진 마음으로 모래놀이실을 찾아온다. 처음 방문할 때는 무겁고 어두웠던 모습들이 모래놀이 상담을 하면서 점점 환한 표정으로 바뀌고 희망에 찬 새로운 삶으로 나아



가는 것을 보면 인간 안에 '재생 능력'을 심어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 경외심이 든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겪어내면서 삶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스스로 터득해가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은 참으로 복되다.

'모래놀이'란 모래를 만지고 소품을 놓는 단순한 과정 같지만 무의식의 보물 창고에서 강한 치유력과 창조성으로 자신이 찾던 삶의 열쇠, 나침반을 발견하게 되는 신비가 숨어 있다. 자신에 대한 통찰력으로 본래의 모습을 마주하고, 고통스러웠던 상처들도 받아들이며 소화하는 힘을 키우면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찾게 된다. 어느 때에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이끌어갈 수 있게 변환되는 것이다. 모래놀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수치스럽게 느끼던 것들이 자랑스러움으로

바뀌고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삶의 원동력으로 전환되는 체험을 하며 다시 일어나게 된다. 우울증은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 증상이 아니라 '아직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마음의 고통'이며 그 통증으로 인해 진실 되고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가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봉사과 나눔의 열매를 맺고 새 삶의 기쁨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너무도 깊은 심연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 아픔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함께 겪어주시려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한다. 인간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 아파 사람이 되어 그 몫을 함께 지고 가시려 강생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 같은 처지가 되어 함께 겪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많은 체험의 은총 속에서도 여전히 작은 것에 흔들리고 괴로워하며 부끄러워 숨는 나를 보면서 하루하루 겸손되이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되새긴다. 십우도의 마지막 여정에서처럼 다시 저잣거리로 들어 가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하고 촌스럽기까지 한 '있는 그대로의 온전함, 평범함의 위대함'을 살아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약함과 모순과 한계를 지닌 허물투성이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각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살이기를 기도 한다. 모래놀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삶의 다양한 역사와 섭리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새 생명을 얻는 신비를 배우며 힘을 얻는다. 고마운 나의 스승이자 예수님이신 그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 모래놀이 상담사의 기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어  
수억 년 동안 갈리고 부서진 모래를 통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빛으로 저희를 밝혀주시어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낮게 하시며  
자아의 힘을 길러 주시어  
무의식 안에 심어주신 가능성을 믿고  
자유롭고 활기찬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저희의 연민과 경청과 기도가  
매순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기쁘게 봉헌하는 은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만남에 축복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우리에게 오신 난민 예수

백 나타나엘 수녀



### 갈레 난민촌<sup>1)</sup>

성 신부님이 군 생활을 하셨다는 곳에서 멀지 않은 갈레(Calais) 난민촌에서 처음으로 난민들을 만났다. 불어를 배우던 첫해부터 '갈레 정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서 늘 그곳에 가보고 싶었다. 화면으로 보는 마을은 송파마을 이랑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출국

을 며칠 앞두고, 운 좋게 그곳에서 실습하는 프라도회 소속 한국인 사제를 통해 난민촌에 봉사하는 까리마스 직원과 연결이 되었다. 그렇게 꿈꾸었던 난민촌 방문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화면으로 본 첫인상과는 달리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대략 따져도 7천명은 넘을 거라고 했고, 쓰레기장으로 쓰이던 부지는 2만평은 넘는다고 했다. 게다가 사진



이나 방송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축축함과 쓰레기 냄새, 고양이만한 쥐들이 활보하는 난민촌은 내가 이제껏 상상했던 가난함과 비참함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다. 배식은 하루 한번, 오후 3시라고 했다. 그나마도 엄청나게 긴 줄을 서야 했고, 목숨을 걸고 또 가족이 목숨을 잃는 걸 지켜보면서까지 갖은 어려움을 뚫고 그곳까지 도착한 난민들의 삶은 고되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들이 가슴 깊이 파고 들어왔다.

#### 가장 절박한 곳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로...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프랑스는, 나에게서는 아프리카로 가는 관문이었다. 단지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들이 파리를 경유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릴 적부터 늘 아프리카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알 수 없는 세계였고, 그 '알 수 없음'은 늘 나의 마음을 끌었다. 수도자가 되면서부터는 그 알 수 없는 세계는 가장 절박한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난민촌을 다녀오고 나서 나의 마음은 난민들에게 온통 쏟아져 버렸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난민촌으로 가게 되리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종신 수련 전 체험 가능한 사도직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우고리를 드나들면서 유난히 자주 만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마음이 갔다.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고, 그냥 몸만 가서 편히 지내다 오면 되는 이주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가? 길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 질문들이 마음에 물결을 일으키더니, 끝내 그 질문들은 그들을 만나

야 할 것만 같은 느낌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왜 그들을 만나고 싶을까? 기도 안에서 묻고, 함께 하는 소비녀들과 나누며 지내던 중에, 선물처럼 총원 자매들이 우고리로 왔다. 베트남어 미사에 가는 그들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셨다고 믿기 시작했다. 지하실의 축축하고, 어수선했던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 삼삼오오 모여서 상담을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바로 여기다!'고 느끼고 말았다. 그렇게 마음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기도하고, 나누고, 의논하면서 종예반 귀원 전까지 의정부 엑소더스에서 일하게 되었다.

#### 의정부 엑소더스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아서 눅눅하고 자주 상하수도가 역류하는, 그래서 깔끔함과 사뭇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곳은 사실 절박한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 일하는 활동가들도 충분하고, 어쨌든 교구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또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후원금들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오는 이들은 갖가지 절박한 사연들을 가지고 온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이 말소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sup>2)</sup> 일을 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스스로 사장님에게 요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한다. 잘못 요구했다가는 맞거나 아니면 오히려 신고를 당해서 강

1) '칼레 정글'이라고 불리던 이 난민촌은 율해 대신을 의식한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에 명령으로 폐쇄되었고, 이곳에 거주하던 난민들은 새로 정비된 여러 난민촌들에 분산 수용되었다고 한다.

2)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사실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이 말소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부른다.

제 출국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하긴, 합법적 체류지위를 가진 노동자들도 별로 다르지는 않다. 오죽하면, 노동자들 입에서 차라리 미등록이면 나올 뻔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이들이 묶여있는 '고용허가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다. 고용허가제를 두고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법률체계 아래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인데다, 사장의 전화 한통으로 그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바로 박탈할 수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말도 잘 통하지 않으니 그들은 답답할 뿐이다. 이런 이들이 즐겨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의정부 엑소더스이다.

이곳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지 출신-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여성 활동가들의 활약이라고 생각한다. 세 분 모두 이주 여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상태이지만, 처음에는 다른 센터 이주여성들처럼 단순히 통역업무만을 담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센터장 신부님은 그분들이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한 소송을 동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었고, 고용조건도 한국인 활동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셨다고 한다. 주일이면 넘쳐나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노동자들로 엑소더스는 언제나 북새통을 이룬다. 한국인 활동가들이 공감해줄 수 없는 그들 고향의 정서들까지 공유하면서 동반해주기 때문에, 다른 센터들이 아니라 굳이 엑소더스를 찾아 멀리에서도 오곤 한다. 그래서일까? 찾아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가족 같다. 그들은 굳이 일이 없어도 오기도 하고, 올 때는 까만 비닐봉지에 뭐라도 담아오고, 또 그렇게 가져온 음식은 그 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다. 우리 역시 밥이든 간식이든 가진 것을 모두가 함께 나눈다<sup>3)</sup>.

의정부 교구 내에 구리, 파주, 의정부 3개의 엑소더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가들이 일하는 곳이 의정부 엑소더스다. 이주 여성 활동가 3명, 한국인 활동가 2명, 다문화 배경 활동가 1명, 한국인 회계 직원 1명, 센터장 신부님, 그리고 실습생 수녀까지 총 9명이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뭔가 다르고 활기가 있었다. 첫 몇 주간 동안은 이 신선함의 근원이 어디인지가 정말 궁금했다. 센터장 신부님이 바뀌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활동가들에게 "최저임금을 받아내 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센터직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셨기 때문만은 아닐 거다. 내가 찾은 답은 그분의 ‘남다른 리더십’이었다. 이 리더십의 주인공은 자리에 계실 때에도, 안 계실 때에도 그 누구도 그분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없으시다.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회의를 주관하시기는 하지만, 결정을 할 일이 있을 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뿐이다. 대신 어떤 사람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들은 당신이 먼저 던지시 제안하거나,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 심지어 실패의 가능성이 뻔해 보일 때도 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신다. 그리고 예상한 일이 닥쳐오면, 누구에게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함께 짊어지기 위한 방법을 찾으신다. 그렇게 각 활동가들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활동가들을 춤추게 하고 있었다. 물론 때로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 굴러가도록 허락하시고, 굴러오는 짐들은 고스란히 활동가들이 짊어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의 미움을 사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시는 태도는 우리 중의 누구도 공동체의 가장 약한 사람을 쉽게 배타적으로 밀쳐내 버리거나 판단해버릴 수 없도록 만드는 묘한 힘이 있다. 그 약한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소중함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게 한다. 그래서일까? 의정부 엑소더스는 직원들이 자꾸 가고 싶은 일터, 각자가 주인공 일터, 약자를 품어 안는 일터이다.

공동체의 힘 때문일까? 유난히 의정부 엑소더스 직원들은 외부 단체들과 협력하는 일들도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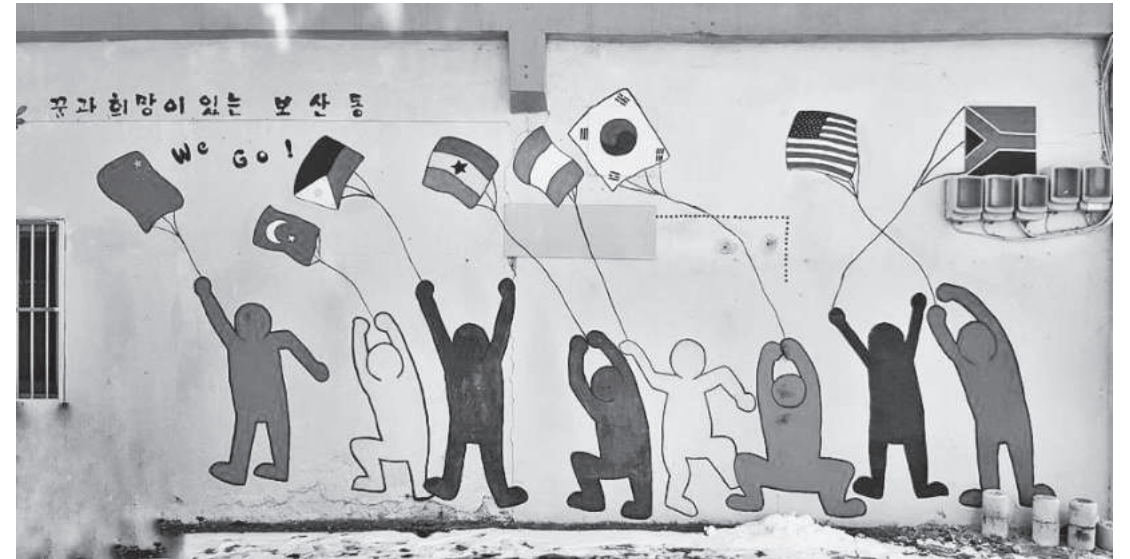
성하게 활동<sup>4)</sup>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노동자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에서 인종차별대응팀과 UN 인권보고서 NGO부문 대응팀<sup>5)</sup>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부문 활동의 선구자들은 이 외노협에 다 모여 있다. 이 외노협의 이름으로 국제이주기구나 세계이주기구와의 연대활동 및 연례회의의 참석도 한다. 지난 12월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아시아이주 포럼에도 직원 중 한 사람이 참석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서 주관하는 난민아동지원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난민관련 단체들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UN난민기구(UNHCR), 공익법무법인들과 함께 난민네트워크라는 비공개 워킹그룹에도 지난 11월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문제를 도와주는 사단법인 희망의 친구들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의료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제 실습 4개월 째, 운 좋게도 외노협 활동과 난민 아동 지원 사업, 난민네트워크 활동에 함

3) 재화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 공동체는 인상적이었다. 겨우 몇일 출근한 실습생에서 센터장의 자동차를 가지고 퇴근하라는 말이 그 누구에게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공동체 의정부 엑소더스이다. 마치 물건은 있되 주인이 없는 느낌이랄까? 많은 물건들이 오가지만 그 물건들에 욕심을 내는 직원들이 없다. 언제나 후원품들은 노동자들이 우선이다. 이 당연한 사실이 내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4) 직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함에 있어서는 센터장 신부님도 예외가 아니다. 의정부 지역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몇 분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역사를 바로보고, 베트남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베트남 프렌드’라는 모임에서 하고 있는 베트남 평화순례에 함께 참석하였고, 이 순례를 엑소더스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 개선 분이 센터장 신부님이시다.

5) UN에서는 4년에 한번 인권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각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정부는 그 질의서에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감시역할로서 NGO단체들이 정부의 질의서에 대해 심의하는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인종차별 부분과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여성 인권, 고문방지협약 분야에 대한 질의내용을 검토하는 팀에 외노협이 함께 하고 있다.



께 하고 있다. 센터장님의 리더십은 불과 몇 개월 짜리 실습생에게도 예외가 아니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할 만큼...! 물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끄는 분들은 보산동에 주로 거주하고 계신 난민들이다. 다시 바다를 건너 찾아가서야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나보다 먼저 여기에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난민들이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이름과 역사를 지닌 아름답고 용기있으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안배하시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갈 뿐이다.

지나온 실습 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난민가정들에서 새 생명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고, 또 많은 새 생명들이 잉태된 기쁜 소식들을 들었다. 이

아기들은 부모님들의 언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울게 분명하지만, 국적은커녕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난민가정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뿐일지도 모른다. 왜 이토록 난민들이 나를 아프게 잡아끄는 걸까? 남은 실습기간동안 난민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여보고 싶다.







#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한 그녀들

## 총원의 선배 소비녀 찬가

조 예수의 소피아 수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꽃꽃>/나태주

“하느님, 날 구하소서!” 우렁차게 울리는 성무일도 초대소리, 이것이 길음로 9길에 자리한 총원의 저녁기도이다. 우주를 품고 지구를 염려하며 생명을 돌보는 선배수녀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날은 활기차고 역동적이다. 아침이면 기상음악이 울리고 침묵 중에 부산히 움직이는 고요함 속에 느껴지는 오래 묵은 내면의 힘. 삭히고 삭혀진 씨실 낱실의 역사가 매일 눈에 보이는 곳, 소비녀 중에도 오래묵은 장처럼, 오래 삭힌 음식처럼 깊고 그윽한 향과 맛이 나는 우리 선배 소비녀들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

평생 예수그리스도만을 따라 봉헌의 삶을 품어 익혀온, 오순도순 모여 살아가는 모습은 생각보다 매우 활기차며 재미가 있다.(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알리라!)

결코 시들지 않는 우리 선배수녀님들의 열정을 누가 따를 수 있을까. 꽃다운 나이에 입회하여, 금경축을 이미 보냈거나 곧 맞이할 노구의 일상이지만 지구를 살리는 바지런한 움직임의 연속이다. 놀랍다. 경탄스럽다. 성무일도, 미사, 갖가지 전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다양하고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책임과 사명감으로 푹푹 뭉쳐 구석구석, 시시때때,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합심이 어우러진 삶의 자리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끔 총원의 성무일도와 미사전례안의 선창, 독서에서 ‘노화된 가창력, 노화된 목소리’로만 인식되었던 음성과 움직임은 이제 활기찬 생명력마저 느끼게 된다. 물론 매끄럽지 않다. 아니 다소 거칠 때도 있다. 최선을 다하는 거룩함과 경건한 열정이 느껴진다. 비록 구부정하고, 다소 아늑, 매우 느린 움직임이지만 각자가 맡은 자신만의 분야를 담당하고도 책임 있게 해내는 일상의 그녀들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 시인의 시 구절처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면 더 귀엽고 사랑스럽다.

지구를 살리는 그녀들의 삶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방식도 표현도 활동도 개성적이고 고유하다. 분리수거장에 가면 꼭 만나는 몇 분의 수녀님들은 비닐을 모아 큰 비닐로 만들어 쓰레기 분리수거용 자루로 만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찢어진 비닐을 테잎으로 붙이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여 크게 만든 자루들을 차곡차곡 구석에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비록 분리는 되었지만 부피를 많이 차지한 우유팩, 플라스틱 등을 차곡차곡, 또는 납작하게 만들어 푹푹 싸매어, 들고 가기 좋게 하는 역

할을 맡은 분이 계시고, 텃밭의 작물을 가꾸는 수녀님, 음식물 쓰레기로 환경퇴비를 만드는 수녀님, 아무진 솜씨로 비누며 팔찌목주를 만드는 공방과 수녀님들, 다양하게, 소리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시는 선배 소비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부지런히 움직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모습과 겹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문제든 분리수거문제든 이분들과 대화가 시작되면 ‘JPIC를 해야 되잖아’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일상적으로’ 듣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는 JPIC-창조질서보전, 생태적 삶을 일상으로 살아내시고 계시다. 오랜 세월 삶의 모든 것, 즉 기도, 희생, 사랑, 헌신의 역사로 몸과 마음을 삭히고 발효해내며 살아온 분들이기에 ‘삶으로 표현하는’ 생명 살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발효된 효소 같은 선배수녀님들이다. 소비녀 엑기스이다. 비교적(!) 젊은 세대에게는 ‘운동’ ‘캠페인’으로 이해한 것을 숨 쉬듯, 밥 먹듯 그냥 살아간다.

상대적으로 젊은(결코 청춘이라고는 할 수 없

는 나이들이지만, 그중에 한두 명은 진짜 청춘이 있음을 참고하시라!)수녀들이 지쳐있는 저녁에 우리 수녀님들이 온 힘을 다해 우렁차게, 또는 목소리 높고 곱게 선창해주는 저녁 성무일도가 얼마나 재미로운지 와서 느껴보시라!(많이 긴장하시면 정말, 매우, 너무 높게 음을 잡으신다!) 청원기도 중에 바치는 시대적 관점의 자유기도의 깊은 진실성, 성시간을 주도하실 때 바치는 순박하고 진지한 기도의 내용들을 어느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있겠는가. 오랜 세월 삶으로 바쳐진 수도생활이 뿜어내는 향과 생명력을 말이다. 선배 수녀님들은 후배들이 마냥 이쁘고 사랑스러우신가보다. 만나기만하면 웃음과 사랑어린 말씀으로 어루만지는 우리 수녀님들은 JPIC, 그 자체이다. 오랜만에 미아리 꼭대기에 돌아와 새롭게 심겨진 듯, 선배수녀님들의 사랑을 먹고 나의 희망도 되살아나는 나날이다.

오, 찬양하라 우리 육신의 노화를! 오, 놀라워라, 노화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신비! 오, 감사하라,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 아름다운 노년 수녀님들과의 일상을!



# 현장 연대 스케치







# 곶다시 모여 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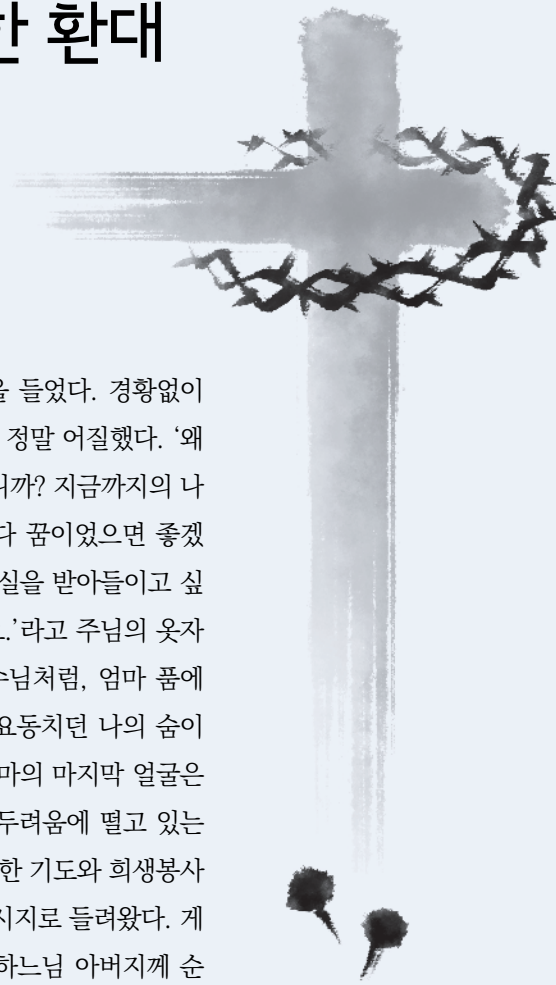


나는 어둠과 빛을 넘나드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길을 걷고 싶다.  
그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아버지의 얼마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함께 알아가고 싶다.  
나는 또 길을 잃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나의 존재를 잊고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또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들과 걷고 싶다. (본문 중에서)



# 순명,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환대

김도로시데이 수녀



## 시작, 어머니와의 이별

1년 전 이맘때 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황없이 달려갔을 때 이미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그런 엄마 앞에서 정말 어질했다. ‘왜 우리 엄마여야만 하나요? 주님이 주신다는 보상이 이것뿐입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희생은 뭐였나요?’ 온갖 원망들이 솟구쳐 나왔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꿈이라면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부정하면서 결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제발 우리 엄마 살려만 주세요. 뭐든 다 하겠어요.’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다. 겹세마니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엄마 품에 엎드려 기도하며 매달렸다.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차 가쁘게 요동치던 나의 숨이 차츰 고르게 가라앉으며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엄마의 마지막 얼굴은 결코 슬프지 않았다. 너무도 맑고 평온한 그 얼굴은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조용하게 다독겨려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가 못 다한 기도와 희생봉사를 우리 딸 도로시데이 수녀가 뒤이어 살아달라는 엄마의 메시지로 들려왔다. 겹세마니에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알아듣고 깨닫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명력이고 순명에 도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 순명은 귀를 여는 것

순명(obedience)은 ‘자기의 귀를 열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 이것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 실제적인 태도이며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를 뜻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한 의지와 무조건적인 은혜에 순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순명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다. 법정 수련기에 사랑하는 엄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눈도 한번 못 마주치고 이별해야 했던 사건을 어떻게 하느님의 선한 의지와 무조건적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도 올라온다.

그런데 겹세마니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조금은 순명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의 고통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분명히 그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귀를 열고 듣는다는 순명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때로는 나의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자잘한 사건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도 끊임없이 순명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을 느낀다. 특히 남에게 순명하는 것, 자신을 내어맡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내 삶을 뒤흔드는 큰 사건에 순명하는 만큼이나 일상 속의 자잘한 순명 또한 가볍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된다.

## 순명은 인격적 성취에 이르는 길

순명서원에 대하여 어느 책에서는 “순명을 인격적 성취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인격적 성취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을 통해 수도자다움과 수도적 측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것을 가장 수도자답게 가장 수도정신을 잘 담아내는 것이 순명이라고 이해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나의 가족, 내 몸, 지력, 교육,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 이 모두가 내가 유전 받았거나 나에게 외부로부터 닥쳐온 것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 한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정립해 가느냐가 내가 할 수 있는 인격적 성취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존재함을 알고, 심지어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소신과 믿음은 나의 인생을 깊이 바꾸어 놓으며,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방식을 철저히 바꾸어 놓는다. 온갖 갈등을 견뎌나갈 힘을 주시는 그분을 믿으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경험에서 나를 성숙시키는 삶이 곧 하느님의 현존에 의해서 살아





가는 것이고 수도자로서 사는 길이다.

인간 완성의 길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며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다. 길은 뻗어가면서 들을 지나고 바위산을 거치고 강을 건넌다. 이처럼 우리의 길 또한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일과 기도 등에 모두 맞부딪쳐야만 한다. 길 가운데 바윗돌이 나타나고, 거기다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장애물들, 자기부정과 개방적인 자세가

부족해서, 타인들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걸어가는 것이 수도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을 수도생활의 초년생임에도 벌써 많이 공감하게 된다.

그런데, 길에 놓인 돌이 장애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가져다가 내 집을 짓는 데 유효하게 쓸 수도 있는 것처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기회, 타자를 자기 이웃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기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준다. **나의 말이 내가 순명서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돌들 하나 하나가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였던 징검다리. 구름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원자 때 라이프스토리를 쓰면서 어두운 기억들, 상처들을 모두 끄집어내야 했던 때가 떠오른다. 기억의 상자 속으로 들어가 그동안 꽂꽂 묶어두었던 응어리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싫었다.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그것들과 직면 하면서 라이프스토리를 써나가는 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자유는 나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들은 분명 원망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돌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도 계속 저의 불편과 아픔 속에서만 몰두하고만 있었을 것이다. 삶의 여정 안에서 큰일을 겪고 나니, 한결 시야가 넓어짐을 느낄 수 있었고,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 순명은 예언적 비전으로 바라보는 것

순명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것이라면 순명은 바로 예언적 소명과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초창기 수녀님들의 삶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수도회에 예언적 역할을 하신 수녀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수녀원을 정릉 산꼭대기에 짓기 시작했을 때 모래땅이라 비만 오면 모래가 쓸려 내려가 산 아래 집들이 온통 모래에 뒤덮이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 그때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항의하러 오고 수녀님들이 겪은 고통이 컸

을 때, 돌아가신 김 안나 수녀님은 마을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 신자 한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 “수녀님들, 잘 참으세요. 아마 앞으로 여기 무슨 큰일의 기초를 쌓느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봅니다.” 안나 수녀님은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회고록에 남기셨다. 지금 우리 수도회가 70년 넘게 성장한 큰 수도회가 된 것을 보면 안나 수녀님이 귀 담아 듣고 전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이기에 따라 그것이 그냥 고통과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수도 있고 멀리 크게 내다보는 예언적 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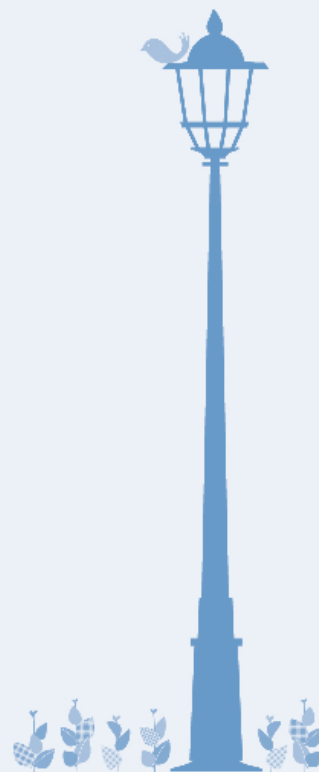
### 순명은 두려움을 넘어 나를 던지는 것

순명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는 소금사람 이야기였다. 바다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길을 떠난 소금사람이 마침내 바다와 만났을 때, 바닷물 속에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들어 바다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바다는 나야”라고 외쳤던 이야기이다. 소금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수록 바다라는 타자와 동화되어 가듯이 우리가 순명을 통하여 자신을 포기할수록 하느님과 동화되어가는 것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에게 순명이 어려운 것은 때로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늘 일이 주어지면 아직도 벌어지지도 않을 것들을 미리 상상하고 걱정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었다. 이 소금 사람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내가 녹아버리고 내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바다 밖에 서 있으면 결코 바다가 무엇인지 끝내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 넘어 일단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20대 초반 한참 놀기 좋아했을 때 동강 래프팅 체험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깊은 물속이라 구명조끼를 입어도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래프팅을 가르쳐주시는 분께 물었었다. ‘아저씨, 여기 물속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그 즉시 그분은 나를 물속에 빠뜨렸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놀란 나에게 그분은 오히려 흐뭇해하는 얼굴로 말씀하셨다. ‘자, 빠져보니 물속 깊이가 몇 미터 정도 되더냐?’

지금 그 때 기억을 떠올려보니,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그려진다. 하느님도 분명 나를 바다 속 깊이, 엄청난 시련 속에 빠뜨리실 때, 맨몸이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혀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래야만 되냐고 되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느님의 손길에 던질 수 있는 용기야말로 내가 죽고 나의 전부를 하느님께 내맡기는 순간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



었다.

나의 개인소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녹이지 않고 결정체로만 남아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느님을 위해 나의 이웃들을 위해 던져지고 녹여질 때 내 존재와 사명이 온전히 완성된다. 순명은 더 큰 내가 되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느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마침, 어머니의 유산 “환대”

어머니를 꿈에라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첫 기일에 엄마가 꿈에 찾아오셨다. 엄마는 살아계실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상 가득히 차려주셨다. 얼마나 기쁜지 음식 한 입 먹고 엄마 한 번 쳐다보기를 반복하면서 “엄마!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난 바쁘다. 청년들을 돌보러 가야한다” 하시고는 조금도 슬프거나 나를 애잔해하는 기색 없이 너무도 씩씩하게 당신 일을 하러 떠나가시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나도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큰 용기가 생겼다. 살아계실 때 정말 기도도 많이 하셨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좋아하셨던 엄마가 천국에서도 여전하시구나, 엄마가 세상에서 못 다 하신 일을, 수도자이고 성가소비녀인 내가 엄마 뒤를 이어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꿈에 나타나신 모습처럼 엄마는 살아계실 때 나를 위해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같이 이제 나도 이 세상의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과 환대의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어머니가 내게 주신 유산이고 또 나의 이름 도로시데이의 영성이기도 하다. 천국에 계신 엄마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슬한 청년들을 당신의 딸과 아들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돌봐주시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느님은 내게서 어머니를 데려가셨지만,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서 더 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희망하며 나의 순명을 그분께 드린다.



### 첫서약 미사 때 봉헌한 도로시데이 소비녀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



주님,  
도로시데이 수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소명을 살고자 합니다.  
어두운 자리 환히 밝히는 작은 빛 하나로,  
언제 어디에서나 조용히 녹아들어  
공동체와 세상에 깊은 맛을 내는  
한 줌의 소금으로,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도로시데이 소비녀에게  
친교와 환대의 겨자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넓은 품과 부드러운 가지를 지닌  
크고 풍성한 나무로 자라,  
가는 곳마다 공동체의 친교를 이끌어내고  
쉽과 돌봄이 필요한 생명들이 깃들이게 하는  
환대의 소비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가난, 우주적 소명

최 바오로 수녀



## 가난 그리고 투신과 연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뜻을 비워내는 비움의 덕목 정도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대서원 연구를 통해 접하게 된 레오나르도 보프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읽으며, 새로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난’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남아있는 힘도 없는 너무나 처절하고 절박한 ‘가난’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하느님을 언제나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이들이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느님께 드려야 할 근원

적 허무함과 인간적 공허함을 고상한 관상이 아닌, 삶으로써 증언하고 있는 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가난을 정해놓은 규칙으로 또는 이렇다 저렇다 규명하고 언어화하는데 급급한 것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청빈서원’ 또한 말뿐이 되지 않기 위해 거듭 거듭 삶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가난인 청빈서원은 이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짓밟힌 사람들과 연대를 맺어 공공연히 투신하는 의미로 전환하여 재해석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

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에 투신하라는 충동을 받지 않을 수 없기에, 하느님과과의 만남은 인간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다수의 인간들 안에 그들을 희생시키는 비참과 주림과 폭력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상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정의를 세워 가난한 이들의 빼앗긴 인간 존엄성을 복원시켜 주시려 오십니다. 이러한 일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기에 기적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 일을 성사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들의 투신을 통해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성사적 도구, 가난을 극복하는 도구가 될 위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런 투신을 감행하는 사람들 안에 그들이 하는 활동 속에 하느님의 행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 이 시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청빈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 기간 중, 저는 꽃동네에서 있었던 수도자들과의 만남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님께서 한국 교회의 수도자들에게 청빈에 대해 강조하여 말씀해주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청빈은 봉헌 생활을 지켜주기에 “방벽”이고, 성장하도록 돕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에 “어머니”입니다. 또한, 청빈 서원을 하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봉헌된 사람들의 위선이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교황님께서서는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려는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세계화와 소비주의가 우리의 희망을 인간적인 수단에만 두도록

이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청빈의 증거를 파괴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죄와 나약함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봉헌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가장 나약하게 느껴지는 때 우리가 부유해지도록 가난해지신 그리스도(2코린 8,9 참조)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하며, 용서와 치유를 받아야 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필요 그 자체가 가난의 한 형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서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양식에서 청빈의 구체적인 표현을 찾아내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방한 그 다음 해였던 2015년 5월 성령강림대축일에 자신의 두 번째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시대의 진정한 가난인 청빈서원과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우리 공동의집 지구가 요청하는 청빈서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미래가 어두운 이 시대에 청빈서원은 생태적인 삶, 창조 질서 보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년 수련기 실습을 이 시대에 가장 고통 받는 절박한 이웃, 지구 환경의 현상으로 파견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의 실습을 통해서 오늘날 생태위기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이라는 사실, 그렇기에 환경문제와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결코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활동의 대상이 인간에서 하느님 창조질서를 회복을 위한 모든 피조물로 옮겨감은 시대적 요청임을 절실히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류 사회를 형성한 사람들의 눈은 생명이 상처 입고 파괴되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낙담하며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는 하지 못하기에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들,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할 것들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기에 이 세상에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환경운동은 무엇에 반대하는 싸움이 아닌 무엇을 위한 싸움이며, 시위꾼들의 선동이 아닌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피조물인 우리 모두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태적 삶을 우리 수도원 안으로 옮겨오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간에 있어 소비적이고 파괴하는 에너지가 아닌 자연에너지-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우곡리 관구본원 주변과 산곡동 농장에서 태양력 발전을 이용하여 햇빛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실천방안(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의 협조 등)들 중에서 우리(개인, 수도회)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과감하게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

은 결코 생태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웃과 연대하기 위해 정보와 방법과 영성을 전달하고 지원하고 동반하는 것도 수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대, 관련 단체나 실무자들에게 정보와 방법 등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면밀히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동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점차 세계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의 가난을 통해 지구의 가난을 바라보다.

실습기간 중, 항암으로 투병 중이셨던 저의 어머니께서 끝내 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하시고 아픈 적 없으셨고, 항상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엄마였기에 '우리 엄마는 괜찮을 거야.'라고요. 어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지구 또한, 아픈 줄도 모르고 병든 줄도 잊은 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 엄마의 넉넉한 품에 기대어 사는 인류라는 거대한 자손들 때문에, 온갖 동물이며 식물들 때문에 지구 엄마는 병든 자신의 몸을 뒷전인 채, 그들을 위해 남아있는 생명 있는 힘껏 버티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구가 앓고 있는 병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엄마로부터 받은 유산은 지구라는 더

큰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소명입니다. 또 다시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기에 저는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의 어머니 지구를 잊지 말자고,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스스로는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픈 지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어찌지요?"

이제 청빈 서원은 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아껴 쓰고 가난하게 사는 개인적 청빈을 넘어서 지구를 살리고 지구 안팎의 모든 생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우주적 소명입니다.



### 첫서약 미사 때 봉헌한 바오로 소비녀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



주님,  
바오로 수녀는 어디에서든지 그곳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하는 우주적 소비녀로 살고자 합니다.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섬세해진 생명에 대한 감수성으로 세상의 절박함과 상처를 품어 안으려 합니다.  
주님은 바오로 소비녀에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파괴되고 조작되고  
변질되어 가는 세상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강생의 유전자,  
강생의 DNA를 뽑아내고  
퍼트리려는 소비녀가 되고 싶은  
바오로 수녀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정결, 나를 꽃피우다

함 예수아 수녀



정결서원은 나에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다가왔다. 전통적 관점의 정결은 문자 그대로 동정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조된 소극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에는 이런 소극적 의미로 정결을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한 정결은 이러한 의미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정결서원은 언제나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게도 한다.

얼마 전 보았던 영화 “필로미나의 기적”에 나오는 힐데가드 수녀가 전형적으로 소극적 정결서원을 억압적으로 살아온 수도자의 모습이었다. 미혼모들을 불결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이 수도자로서 지켜온 정결을 우월하게 느끼며,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면서, 마치 복음적 애덕을 실천하는 양 살아온 여성수도자들의 모습에서. 억압된 성이 얼마나 냉혹하고 타인에게 무자비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너무도 잘 볼 수 있었다.

또 한 편으로는 같은 이름의 성녀 힐데가르트는 그 어느 때보다 성을 억압하고 극

기와 고행으로 엄격한 수도생활을 했던 시대를 여성 수도자로 살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돌보라는 생명의 영성을 충만하게 꽃피웠던 성녀였다.

정결서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필로미나의 기적에 나오는 힐데가드 수녀의 모습과 하느님께 대한 열정으로 대담하면서도 우주적인 사랑을 살았던 힐데가르트 성녀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정결서원의 두 차원을 목상하게 되었다.

## 정결서원에 대한 전통적 관점

전통적 관점은 정결을 법적, 예식적, 윤리적인 순수함이라는 좁은 의미로 가두어 성 혹은 순결에 대한 소심증이나 강박관념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했다. 물질, 육체, 성, 혼인을 거부하며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게 되었고, 봉쇄의 목적은 정결한 이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결체험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부정적인 규칙과 금지, 제한규정들로 죄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은 순결을 수덕과 의지력으로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며, 소심해지고 공동체 생활이 약화되었다. 남성과 여성이 양립할 수 없는 정결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결서원이 수덕적, 규율적,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될 때, 먼저 내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감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원일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는 도심 변두리 지역의 소규모 공장들이 막 들어서던 마을이었다. 삭막한 주변 환경과 허술한 집, 맞벌이하시는 부모님 등 어린 여자아이에게는 결코 안전하지 못한

다소 위험한 환경이었다. 또한 유독 신앙심이 강하셨던 엄마의 육체적 정결에 대한 당부를 항상 듣고 자랐다. 그러다보니 정결서원이 나에게 불편하고 경직되고 두려움의 서원으로 다가왔다. 특히 우리가 성장해온 사회는 여성은 정숙하고 단정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문화였다. 여성의 위상이 많이 변화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전히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람들을 접하면 속으로 ‘자신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행동을 하지 않았나? 단정하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앞서서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여성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에 대해서 분개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나 역시 전통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차츰 내 안에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희생당한 사건들을 접할 때 “잘못은 누구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의로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여성이 사회적 성적 폭력상황에 놓이게 되는 자료들과 사례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여성이 불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나와 같은 성장과정을 거쳐 왔고, 그중에는 크게 피해를 입고 지울 수 없는 상처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사회가 만들어낸 여자를 억압하는 모든 사례로부터 나 스스로 그 굴레에 갇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인식과 남성이 남자고 여성이 여자라는 오류로 발전된 문화들이 가져온 사회의 어둠이라고 생각된다.

### 정결서원의 새로운 관점

수련기 동안 정결서원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정결서원을 새롭게 해석한 여러 개념들과 관점이 다양하게 펼쳐져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가운데 정결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 이 관점에서는 성의 통합을 한 인간의 온전함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성은 생식력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감의 표현 방법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성적 특성이며, 따라서 여성과 여자는 같은 말일 수가 없다. 모든 인간 안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인간 안에 여성성은 생명의 원천적 근원으로 생명을 주는 충만함의 힘이며, 남성성은 생겨나고 전개되는 생명이며 생명을 조직하고 다스리는 힘으로 함께 존재한다고 한다. 한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성이 서로 인정되고 통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개성화가 되어 한 인간으로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신비를 향해 자기를 열어 가는 존재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개방하고 상대방을 수용함으로써 인간적 사랑 보다 훨씬 더 큰 사랑에 참여하며, 인격적 충만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나누면서 자신 안에 남성과 여성을 통합해 나가며 더 큰 사랑으로 초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결서원은 혈육을 뛰어넘어 철저한 사랑과 상호성을 서원하는 것으로, 누구든 제외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보편적 사랑인 희생적이고 사람을 인격화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뛰어들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스러움을 여자로, 남성스러움을 남자로 동일시하면서 무수한 차별을 불러일으켰고, 남자들이 남성을 독점함으로써 이성과 지배권과 사회 안의 활동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간주하며, 성의 통합이 아닌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문화가 지속되어왔고 이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위배된다고 본다.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한곳에 매이지 않은 사랑을 보여주셨다. 시대적으로 죄인인 사람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억압되어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망 받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등 예수님은 사람을 만남에 있어 다양한 관계를 맺으셨고 죄를 용서해주심에 있어 한계를 두지 않으셨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나는 어찌면 여자로서 여성성도 아닌, 내 안에 함께 존재하는 남성성도 아닌, 좀 어정쩡한 정체성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나는 여성스럽다는 말, 여자답다는 말을 거부하며, 오히려 남자애들처럼 행동할 때도 많았는데 이것은 '여성'이라고 규정짓는 사회적인 이미지에 대한 반항의 표출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들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로서 갈등을 느껴야만 했다. 첫 서약을 앞두고 삼대서원을 성찰, 숙고하면서 내 안에 성의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며, 정결의 참의미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여성

수도자 '힐데가르트 폰 빙엔 성녀'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 여성수도자 힐데가르트의 비전으로 다시 보는 정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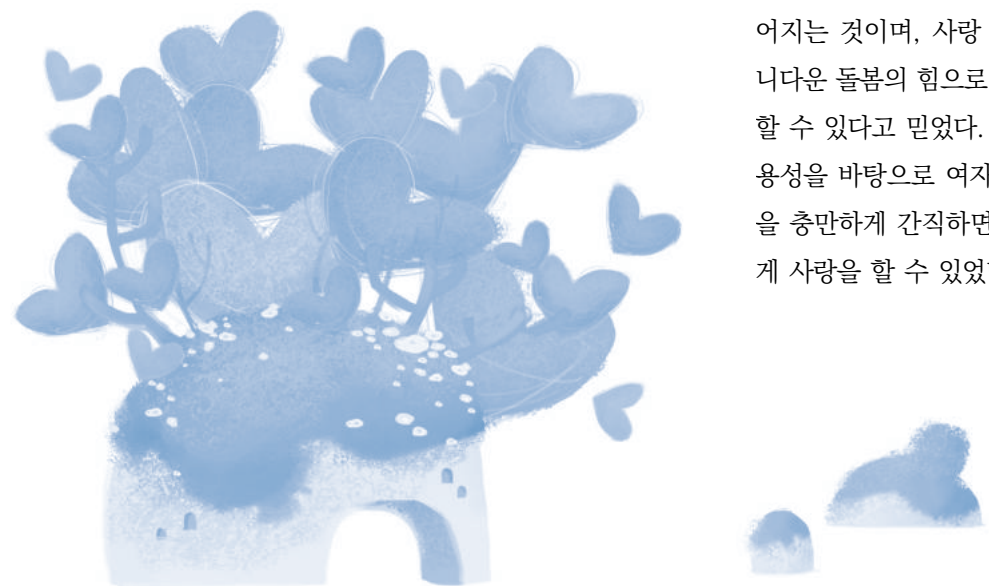
시대의 흐름에 매이지 않고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을 찬미하며 사랑할 줄 알았기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연민과 사랑으로 돌보았던 수녀 힐데가르트는, 정결을 성의 절제로만 이해하고 있던 나에게 여성수도자로서 정결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나눌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게 해주었다. 우선 힐데가르트는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을 통합하는 사상을 가졌는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선하다"고 보았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열등하고, 연약한 정신과 지성을 가졌으며, 남성으

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통용되었던 시대,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재능을 두려워하며 권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의 창조력을 증명하기보다는 항상 방어적으로 숨기고 변호하는 데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던 시대에, 힐데가르트는 땅의 생명력을 노래하고, 특히 여성을 낮추어 보던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임을 자랑하라'고 수녀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녀는 이전까지 전부 남성 수도원에 종속된 형태로만 존재했던 수녀원을 과감하게 독립시켰다. 또한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도덕과 신학에 대한 질문에 답했으며, 정치적 결정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는 대답성을 보여주었다.

수도공동체의 어머니로, 현명한 지도자로, 가난한 이들의 보호자로, 특히 병자들을 위한 배려가 깊었던 힐데가르트는 약초를 이용한 자연요법과 보석치료도 개발했고, 특히 음악을 통해 정신분열 치료도 시도하였다. 치유는 하느님이 인간

에게 준 본래의 힘을 회복하면 얻어지는 것이며, 사랑 가득한 어머니다운 돌봄의 힘으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전체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여자로서 여성성을 충만하게 간직하면서도 자유롭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여







성이자 여성수도자였다.

### 내가 살고 싶은 정결 서원

힐데가르트가 살았던 정결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녀는 어떻게 시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여 사도로서 여성수도자로서 담대하고도 창조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을까? 나 또한 한 명의 여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강하게 열망하는 수도자로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먼저 나 자신의 내적자아 측면에서 정결을 점검해 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항상 조심하고 억압적인 교육을 받아 성장해 오면서 자유롭게 나를 드러내 보일 수 없었기에 내 편안한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여성스러움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 같다. 특히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도자다운 태도, 몸가짐 등을 접하게 되었는데, 차분한 움직임과 말의 표현 등에 대해 말을 들을 때 마다 어딘가에서 부터 거부감과 저항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사회의 부조리와 약자들에게 불의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이를 표현하는 데는 움츠리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나는 여전히 여성적이기도 남성적이기도 못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

참된 정결서원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어느 측면에서 더 정결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안에서 건강하게 통합될 때 힐데가르트처럼 하느님이 주신 자신만의 고유함을 가지고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설렘을 선물해 주었다. 나만의 고유함은 무엇일까? 나의 고유성을 어떻게 성장시켜서 풍요로운 정결서원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생태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식물이나 곤충이나 새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과 함께 자라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늘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서로 해침이 없이 어울려 사는 것이 꿈이었다. 오늘날 생태계는 사람에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평가되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에 이 꿈은 나에게 더욱 특별해졌다.

또한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이나 사람의 고유함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내가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를 대할 때도 그랬던 것 같다. 아이들을 사회적 기준에서 보지 않고 그 아이들의 생활환경과 고유성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가갔는데 그들만의 이해받지 못할 아픔과 고통에 가닿을 수 있었다.

한 생명의 깊은 내면과 소통하며 그의 고유함과 특별함을 읽어내는 것은 여성성이 지닌 장점이다. 내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여성성을 충만하게 꽃피워 생명을 살리고 돌보

고 성장시키는 생태적 삶에 헌신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 나는 세상의 불의함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강한 분노감을 느낀다. 그 분노가 내 삶의 가난의 모습과 그 가난이 사회적 악과 남성중심의 시대적 사고와 연관되어 있기에 올라오는 내 감정의 투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불의 앞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나의 내면을 보았다. 나는 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그분의 남성성을 내 안에 통합시켜 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내면을 다져가고 싶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 탄탄하게 기초한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용기 있게 하늘나라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예언적 소명을 실천하고 싶다. 이것이 여성 수도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꽃피워야 할 사랑의 서원이라는 결론을 내려 보았다.



### 첫서약 미사 때 봉헌한 예수아 소비녀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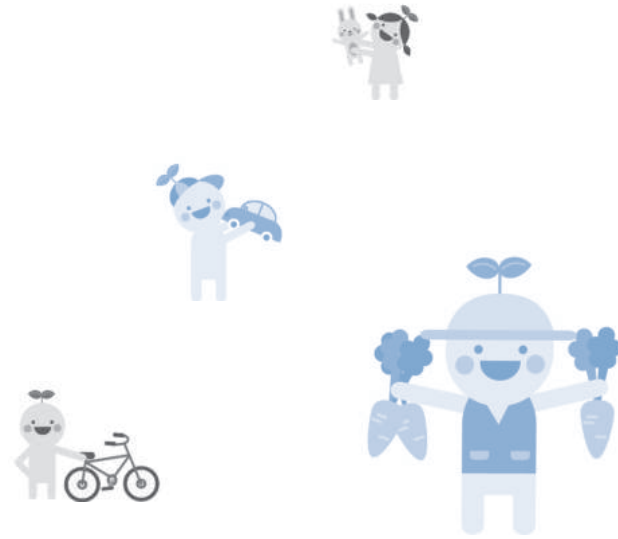


예수아 수녀는 예수님이 꾸었던 그 꿈을 함께 꾸는 소비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꿈은 모든 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상과의 통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예수아 소비녀에게 작고 약한 생명들, 어린이와 꽃과 풀과 동물과 곤충과 소통할 수 있는 맑고 순수한 영혼의 눈을 주셨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작은 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려는 예수아 소비녀의 꿈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 충만한 가난의 여정 빵을 쪄개어

이 사도도한 수녀



홈커밍 농장에서

2015년 11월. 자기양성계획피정을 통해 새롭고도 낯선 여정이 시작되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북미 원주민들의 성인식인 비전 퀘스트(Vision Quest)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성인이 되는 해에 절대 침묵 속에서 광야나 깊은 산 등 자연 속으로 나아가 위대한 영(Great Spirit)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

다. 나도 이 여정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과 직면해야 하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나의 모든 삶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던 그분의 소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마련해주신 하느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친히 이끌어 주시던 그분의 온기를 느낀다.

이 낯선 여정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는데, 점차 동반해주시던 수녀님의 도움으로 한발씩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그동안 어떤 하느님을 만났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 즈음 계속해서 내게 이야기를 건네던 '가난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가난을 들어라. 찾아라. 그것을 너의 가난으로 가져라'라는 울림에 깊이 머물게 되었다. 나는 주로 '길 위에서' 가난한 이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으며, 길을 건너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마주했다. '길'은 공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게 큰 의미를 가진 곳이다. 하느님께서는 그 '길'로 나를 초대하셨고, 나는 '길 위의 가난을 만나라. 나의 가난은 충만하다' 라는 부르심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 부르심에는 내가 만난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게 또 다른 큰 도전이었다.

첫 번째 실습지는 서울역의 쪽방촌(한사랑 가족공동체, 작은형제회 운영)과 다시서기 센터(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위탁 성공회 운영)였다. 수녀원 입회 후 서울역 쪽방촌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공동체 소식지에서 읽었던 한 노숙인의 글은 내게 너무도 충격이었다. 지하철에서 잠을 잘 때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발소리가 두려웠다는 글을 읽는 순간, 내가 길 위의 노숙인이 되고, 거리를 무심히 지나가는 나 자신을 화면처럼 보았다. 서울역에서 회사를 다니며 수없이 걸었던 길이기엔 더욱 생생했다. 다시 그 길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두 번째 실습지는 미국 뉴욕의 아미티빌 도미니코 여자수도회(Dominican sisters of Amityville)에서 운영하는 홈커밍팜(Homecoming Farm)이었다. 입회 전 나는 자본주의의 심장 속에서 아무 질문 없이 앞으로만 질주하던 전문직 직장인이었다. 입회 후 마주한 세계는 내게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옳다고 믿고 살아온 가치관이 뿌리채 흔들렸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하고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다 이미 예전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온 생태공동체(미국 뉴저지 제네시스 농장 등)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생태적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했고, 하느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지구공동체가 살아야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함께 꿈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습지가 정해지기까지 약 세달 여 시간 동안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여러 공동체들에 이메일을 보내기를 수십 차례, 될 듯, 안 될 듯... 조바심 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는 동안 나는 처음에 모호했던 방문 목적이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했음을 발견했다. 불확실한 앞날은 때로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광야를 건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돕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간의 답답함과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은 놀랍게 편안해졌다. 그런 과정이 있은 후 홈커밍팜에서 체류에 대한 답을 받게 되었다. 당시는 이미 1차 실습이 진행 중이었는데 영어로는 Homeless라고 불리는 노숙인들을 만나며 '과연 Home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홈커밍팜(Homecoming)의 연락을 받고나니 두 실습지가 Home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참으로 신기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실습지 두 곳도 분명 하





나라는 것을 막연히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실습지인 서울역 주변은 회사를 다니면서 작은 골목까지도 익숙했었지만, 이번에 다시 걷게 된 그 길은 너무도 낯설었다. 사업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가정마저 해체되어 거리로 나오게 된 아버지, 가출 청소년으로 거리를 전전하다 알콜중독자가 된 스무살 청년, 세 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주머니, 염전에 강제로 팔려갔다가 탈출한 아저씨, 돌봐주는 이 아무도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 서울역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갈릴래야였다. 사마리아 여인, 벳자타 못의 병자, 고아와 과부, 병든 이, 다리 저는 이, 눈먼 이... 성경 안에서 만났던 이웃들을 서울역의 거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었다. 이 시대 가난한 이웃 중에 하나인 그들은 '노숙인(露宿人)'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집 없는 사람들(Homeless)'이었다.

실습지에서 하는 일은 특별할 것 없이 일상의 소소함을 나누며 노숙인들의 굴곡진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도 아프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엄습했고, 특히 야간 거리아웃리치를 마치고 온 날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깊은 상실감 앞에 점차 빈털터리가 되어 가는 나를 보게 되었다. 체력적 한계까지 오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영망이 되어



가는 것 같았다. 내가 가진 것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 마치 나의 사지(四肢)가 잘려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러다 소화테레사 성녀의 말씀 중에 "좋은 하느님께서 내 모습 중 특히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보잘 것 없음과 부족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에 무조건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이 나의 큰 보물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힘을 얻었고,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실습지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동안 하느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이기심과 교만으로 쌓았던 성이 부서지는 과정이었다. 부족한 나 자신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진정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가득 찬 나를 비워내야 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만나는 동안 이웃들 안에서는 화수분처럼 따뜻하고 감사한 일들이 솟았다. 신발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께 대책 없이 신발을 갖다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날, 센터에 신발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척 난감했을 때, 도대체 그곳에 신발이 있을 이유가 없는 길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한 켄레의 신발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 내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목주를 청하는 노숙 청년에게 아까운 마음으로 목주를 내어준 바로 다음 날, 다른 노숙인으로부터 길에서 주웠다는 더 좋은 목주를 건내 받으며 부끄러워지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서울역을 오가는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제 내가 만난 서울역은 더 이상 예전의 그 길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사이로 난 아름다운 길. 다양한 이들의 삶을 만났고, 부족한 나 자신을 만나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



서울역 지하도에서 아웃리치 하던 도중 기도를 청한 형제님과 함께

났다. 길 위에서 만난 충만함을 따라 걸다가 당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가난을 만났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온전히 함께 하고 계신 분이였다. 최소한의 관계마저 끊어져 세상과 이웃으로부터 분리된 노숙인들을 만나며 이 시대의 가난에 대해서도 머물러 보았다. 게으르고 지저분하다며 멸시받는 그들은 왜 서울역을 떠나지 못하는가? 지저분하고 추워도 부대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자신을 한 인간으로 받아준 곳. 단지 돈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서울역에 머무는 이들은 관계마저 가난한 사람들이였다. 우리는 그들을 Homeless가 아니라 단순히 Houseless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첫 번째 실습을 돌아보면 매일 흔들리고, 고민하고, 하느님께선 뭘 원하시는지 여쭙며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던 나를 본다. 매 순간이 도



전이였다. 사실 나의 장점이고 자원이라고 생각한 것조차 모두 도전받았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안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축복해주셨고, 부족한 나와 함께 걸으셨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겨우겨우 기어서 빠져나와 보니 누군가에게 업혀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분이다. 참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두 번째 실습지는 이름과 위치만 알 뿐 아무것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걱정이 되었지만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오히려 어느 순간 걱정이 사그라졌다. 아미티빌 도미니코 수녀원 모원 안에 자리 잡은 농장(강생의 신학적 관점 85쪽, 79번 주석 참고)은 룡아일랜드라는 섬의 중간쯤 위치하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지속가능한 미래의 삶을 꿈꾸며 어떻게 지구를 돌보며 살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장 면적은 약 6천평 정도 되었는데 '16년도에는 수도권 부지 내 땅을 영구히 농장으로 보존하자는 수도권 결정에 따라 수녀님들의 묘지를 제외하고 약 2만평으로 확대하였다. 수도권 모원 내(약 170분 은퇴 수녀님 거주, 현 회원 약 500명-전성기 회원 1,600명)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며 농장 실습을 하고, 책임자진 클락 수녀님과 함께 농장의 근간인 토마스베리 신부님의 생태영성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다. 모원에는 대부분 금경축을 지내신 수녀님들이셨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셨고 기쁘게 사셨다. 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녀님들에게서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었

다. 농장 역시 쉽지 않았지만 생명으로 가득 찬 자연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농사란 마치 생명을 살게 하는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 같았다. 우주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이신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만물이 창조라는 악보를 통해 각자의 고유함을 아름답게 춤추는~. 햇살, 바람, 새들, 흙... 농장의 일상 안에서 나는 지구와 함께 생명을 노래하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 홈커밍 농장을 보았을 때는 수도회 안에 하나의 독립된 사도직으로 보였다. 그러나 농장이 모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 공동체 사도직에 직결되어 있지 않은 수녀님들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고, 따라서 모든 공동체 수녀님들 역시 생태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 점차 생태 공동체에 대한 나의 시선이 넓어졌는데 실제로 수녀님들은 수도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지구를 돌보며 예수님을 따를지 고민하고 계셨다. 생태적 덕목으로 땅에 대한 윤리(Land Ethic)를 수도공동체가 함께 약속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농장의 부지 확대, 지구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도회 내 자문기구(Earth Focus Group)가 있다.



아미티빌 수녀님들과의 즐거운 공동휴식 시간

생명자체를 품고 있는 땅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그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현재의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또한 생태공동체의 구성원이었고 농장뿐 아니라 개인에서 시작해 수도공동체, 교회, 지구 나아가 우주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개념이 인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농장은 또한 단순히 식량이 자라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구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라는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홈커밍 농장은 INN이라고 하는 노숙인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농장에서 나는 농작물의 약 20%를 그들과 나눈다. 농장 대표 엘리자베스씨는 가난한 이들일수록 자연에서 떨어져 있다며, 그들에게 신선한 채소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양분을 섭취하고 생명을 얻는 약과 같다고 했다. 우리 시대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생명이신 하느님을 만날 기회조차 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되었다. 농장을 중심으로 종교, 인종, 문화 등 다양함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가난한 이웃과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자연스레 모든 것을 품는 하느님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는 꿈을 꾸게 되었다.

한 번은 실습 중 일주일 정도 농장을 떠나 책임자 수녀님 지인 일행과 피정을 간 적이 있었다. 지구를 위해 기도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19년째 이어오는 분들이었다. 일용할 양식으로 농장에서 감자, 호박, 가지, 고추, 케일 등 채소를 가지고 갔었는데, 감자는 삶고 야채로 요리를 해서 다 함께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을 때였다. 나는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갑자기 온 존재를 가득 채우는

충만함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치 성체를 모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감자를 심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고, 잡초도 뽑아주고, 수확하여 거기까지 함께 왔다. 감자의 모든 여정에 내가 함께 있었고 이제는 감자가 내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었다. 내 피와 살이 되고, 내 생각과 기도가 될 것이었다. 감자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나와 감자는 하느님 안에서 생명의 신비 전체와 하나가 되었다. 이는 성체성사에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깊은 친교(영성체, Communion)와 같았다. 감자 체험을 통해 나의 부르심이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충만한 가난이었다. 서로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받아주는 존재적 일치, 친교, 예수님의 가난은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하나의 부르심이었지만 3개월은 노숙인(Homeless)들과 함께하고, 또 약 4개월은 홈커밍(Homecoming) 농장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건넰 Home이 무엇일까?에 다시 머물러보았다. 그 Home은 공동체라고 이해된다. 나와 감자가 하나가 되는 체험처럼 모든 피조물이 깊은 친교로 연결된 하나가 아닐까. 우리는 서로 깊이 의존하고 있으며 같은 근원에서 왔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기에 사실 나의 이웃

은 내 자신이기도 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 안에서 온 우주의 관계에 대해 머물게 될수록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느님(콜로 3,11)을 만나고, 세상 안에서 고립되고 변두리로 내몰린 가난한 이들이 분명하게 보인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서로 연민도 느끼고, 연대도 할 수 있는 것 또한 새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깊은 친교로 연결하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느님 사랑이시라는 것도.

지금 다시 부르심을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대하셨던 그 길을 다시 걷는다. 그 길은 서울역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미국 아미티빌이기도 하고 또한 아니기도 하다. 지금이야 그 길은 내 안에 이미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알아본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충만한 가난'을 만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과 공간.

실습 중 줄곧 오병이어의 기적사화가 떠올랐다.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루카 9,16)." 축복하시고(bless), 쪼개시고(break), 나누어(give)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쪼개어지는 그 빵이 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뿐인 당신 생명마저 내어주시는 깊은 사랑, 무한한 자비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당신의 가난함 - 존재를 내어주는 사랑- 을 이제 나의 삶으로 함께 하길 초대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사도요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너의 빵을 쪼개어 나누어라. 나의 충만한 가난을 만날 것이다! 빵을 쪼개기 전 하느님께 그 빵을 들고 감사드리며 축복했던 것처럼 나는 늘 그렇게 너를 축복하고 있단다."



#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찾아서

## - 자기양성계획의 여정

송 배나벳 수녀



### 출발을 준비하다!

1년 수련기가 끝나갈 무렵, 자기양성계획을 위한 피정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나의 한계와 약함 그리고 이전에 내가 살아오면서 경쟁을 하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던 방식이 수도공동체 안에서 충돌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정 안에 부르심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는(요한 11, 38~44) 묵상을 하면서 나는 무덤 속에서 죽어있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채 누워있는 나를 만났다. 밖에서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했지만 나는 무덤 안에 누워서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누워있는 상태가 편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자 나는 나가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지고 예수님께서 “이리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조금씩 일어나 몸을 움직이며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누워 있는 지 오래된 나의 몸은 뻣뻣해서 잘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조금해졌고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가 버릴까봐 두려워졌다. 이 묵상 후 나의 상황을 보면서 부르심을 구체화 하였다.

“버나벳! 너의 두발로 어둠에서 빛 속으로 걸어나와라! 기다려줄게!”

그리고 피정을 통해서 내안에 이전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들, 생각들이 충돌하

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수도회 입회 후 연대현장을 다니고 거리미사를 가면서 이전에 정치나 사회문제를 종교와 분리해서 생각했던 내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의 고통과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들과 마주하면서 피정 후 실습 여정을 정하기 시작했다.

실습지를 알아보면서 뜻대로 되지 않자 조금하고 두려운 마음에 공동식별과 기도를 소홀히 했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렇게 흔들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느님의 이끄심과 함께 해주시는 수녀님들의 기도를 통해 나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부천성모병원’과 ‘연대현장’을 실습지로 결정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왜 그 곳에 가는지?” 내 마음 속에 각인하게 되었다. 그 힘으로 실습을 하면서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또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확고할 수 있었다.





## 빛과 어둠속을 걷다.

1차 실습지는 부천성모병원 중환자실과 호스피스병동이었다. 실습초기에는 육체의 건강을 잃고 죽음에 가까이 있는 그곳을 어둠으로 여기고, 건강함, 회복되어가는 여정을 빛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실습을 할수록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그 안에는 빛이 없는 것일까?’, ‘그 분들 안에는 어둠만이 있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중환자실의 격리실에서 장기 입원해계신 할아버지를 만나 함께 기도할 때 그 분 안에 있는 평온한 빛을 만났다. 인생의 여정 마지막쯤 예전에 기도를 기억하시며 고요히 기도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나며 환자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현재는 아픈 상태에서 만난 이분들의 모습이 그들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환자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그들 안에 각자의 인생이 있고,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희노애락이 담겨있었다. “인간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픔 중에도 타인을 생각하는 환자의 마음, 아픈 가족을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애타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마음을 보며 사랑의 빛을 보게 되었다.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진 것을 환자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곳에서 배운 세발, 체위변경... 등 내가 그동안 아무 불편 없이 했던 것들, 소소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 대화와 기도를 함께 하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안의 빛들을 나누었다. 그 빛은 나눌수록 더 강렬해졌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 중에 하느님을 찾는 마음과, 생명을 잃어가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이들 곁에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빛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보면서 빛과 어둠은 한곳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의 탄생을 볼 수 있었던 성주간 수요일. 아기가 엄마의 뱃속이라는 어둠을 뚫고 세상의 빛을 만나 너무나 눈이 부셔서 눈을 꼭 감는 모습을 보면서, 아기는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들었다. 탄생은 자체로 하느님의 크나큰 선물이며, 태어남과 동시에 빛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어둠이 지나면 빛을 볼 수 있고 어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빛으로 가는 여정임을 체득해가는 시간이었다.

호스피스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며 간병인을 기다리는 아들, 남편 간병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좋다면 남편의 병실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아내, 건강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의 기도를 받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 이전의 내가 가지고 있던 빛과 어둠은 서서히 모호해져 갔다.

‘정말 빛과 어둠은 무엇일까?’ 그리고 2차 실습지인 연대현장으로 길을 떠났다.

2차 실습은 수요일로 시작하여 광화문광장,故백남기농민의 농성장(서울대병원 앞),



그리고 세월호유가족들이 있는 안산이었다. 이런 곳에서 나는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내며 세상을 밝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휴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는 법대생의 눈빛,故백남기 농민의 청문회 실시를 위해서 단식농성을 하던 여성농민들의 푸근한 엄마미소, 수요일 12시에서 1시, 한 시간 동안 열정을 뿜는 수요일위의 자원봉사자들의 땀냄새.... 하지만 그들은 시대의 아픔에 함께 아프고 걱정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자신의 바쁜 일상을 쪼개고 나누며 실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보고 만났다.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이전에 내가 볼 수 없었던 공동체와 함께,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그 빛들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사회적 약자들의 슬픈 비명과 몸짓만이 가득하다고 느꼈던 연대현장이 오히려 무채색으로 생기를 잃어가는 거리와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목소리로 깨우고 있으며, 그곳을 살아있는 색으로 바꾸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여정을 걸으면서 농성장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살아왔던 나를 보았다. 지금의 빛을 향한 나의 두 다리에는 어느새 힘이 들어갔고 예전에는 두려웠던 시위대와 경찰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특히 비난하는 이들을 만날 때면 화가 나기도 하고 적대감이 들지만 불쌍한 마음도 들었다. 거짓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빛을 잃어가는 이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빛을 믿고 빛을 향해서 걸어갈수록 용기가 생기고 굳건해졌다. 자유의지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 곁에는 견디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나누며 세상의 또 다른 아픔을 위해서 앞장서는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 세월호유가족들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보통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고 서로를 믿었다. 우리가 함께 있음에 하느님께 감





사드였다. 병원에서도 그렇듯이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고, 결국 사랑이 함께 사는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는 신비가 있었다.

###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나의 주님을 만나다

나는 수도회 입회 후 어떠한 조건과 계산 없이 주셨던 수도공동체의 사랑과 청원실습동안 용문의 생태공동체에 있으면서 내가 잊고 살아왔던 소중한 가치들, 하찮다고 여겼던 일상에서의 생명을 주었던 기억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의 친교, 잊고 지내던 사랑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여정을 걸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누며 그 안에서 치유라는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삶을 살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그 안에서 성장하고 무르익을 수 있는 변화라는 신비로운 힘을 주셨음을 느꼈다.

실습 후 성경통독을 하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 안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다양각색의 모습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고 내가 판단하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았던 나의 성향들과 과거의 시간들이 나를 빛으로 부르시기 위한 주님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부활환시가 마음에 와 닿았다. 하느님께서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예언이 나의 부르심과 겹쳤다.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며 마지막에 영이 불으며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 37,13-14)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느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율법만을 기억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민족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고 새 삶을 주셨다. 성경통독 중 역사서가 끝나고 나의 상처 난 기억 끝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오직 하나뿐인 나를 애타게 기다리셨다.

나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다. 이제 나는 무덤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서 잠깐이라도 아픈 이들의 가족이 되어 돌보아주고 광장에서 약자를 위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향해서 큰 목소리를 내었던 시간들, 불의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었던 시간들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나를 만나는 치유의 시간이자 희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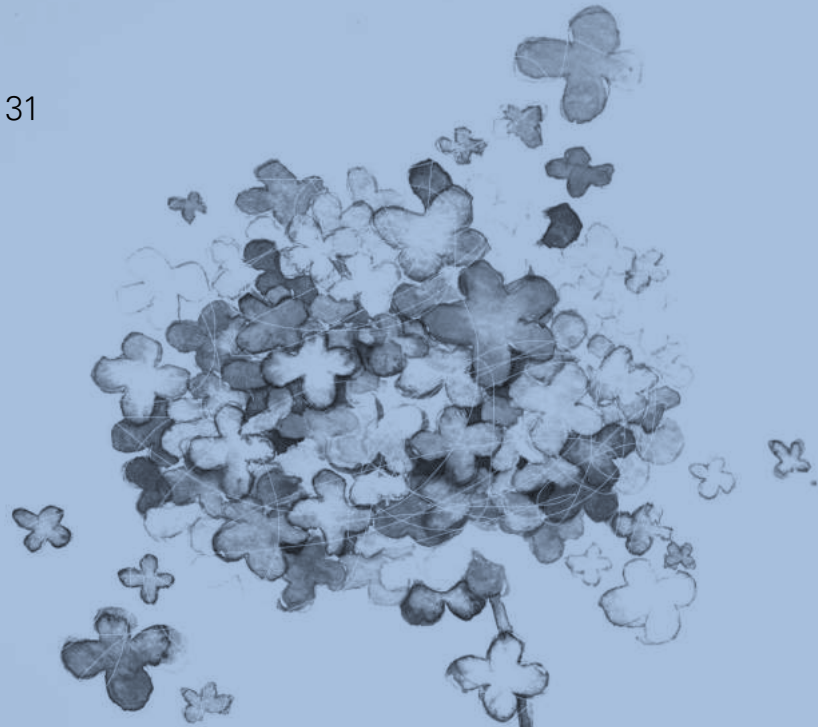
나는 어둠과 빛을 넘나드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길을 걷고 싶다. 그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아버지의 얼마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함께 알아가고 싶다. 나는 또 길을 잃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나의 존재를 잊고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또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들과 걷고 싶다. 내가 다시금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동안 나를 믿어준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사랑의 기억을 재생시켜준 성가소비녀회 수도공동체와 그동안 만났던 무수한 사람들과, 상처와 아픔의 고통을 지냈지만 다시 새싹을 틔우며 희망을 주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은총과 사랑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사랑합니다!!





# 거둠

2016. 1. 1 ~ 2017. 5. 31



우리는 서원생활을 통하여  
모든이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주고  
정의를 행함으로써 예언을 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성가의 빛 6-1)

## 2016. 9. 20 입회식

전 발비나 자매



## 2016. 10. 18 착복식

강 한나, 전 미리암, 장 예수익아나뎀,  
김 시우알렉시오 수녀



## 2016. 10. 18 첫 서약식

김 도로시데이, 최 바오로, 황 예수아 수녀



## 2016. 10. 19 은경축

안 아타나시아, 남궁 라우렌시오, 유 마리루나 수녀



## 2016. 12. 3 청원식

전 발비나 자매





2016. 2. 2 첫서약식

이 바오로, 성 데레사 수녀



2016. 10. 18 은경축

박 마리안또니오, 강 리노, 김 석문가롤로,  
조 영보마리아, 정 히아친따, 오 플레리아 수녀



2017. 2. 2 첫서약식

이 사도요한, 송 버나뎃 수녀



2016. 9. 12 입회식

김 로사 자매



2017. 2. 2 착복식

박 막달레나, 홍 파니비노, 계 베드로 수녀



2017. 3. 19 청원식

김 로사, 마 안나 자매



2016. 1. 18 68회 증신서약

오 피에르, 박 데레스, 이 마리아폴베,  
박 루디빈, 이 프리실라, 강 루하 수녀



2016. 11. 1 금경축

20회, 21회



2016. 1. 17. JMJ 예술제



2017. 2. 14 69회 증신서약

권 아니타, 김 페트리나 수녀



2017. 5. 4 금경축

22회, 23회



2016. 10. 8 JMJ 입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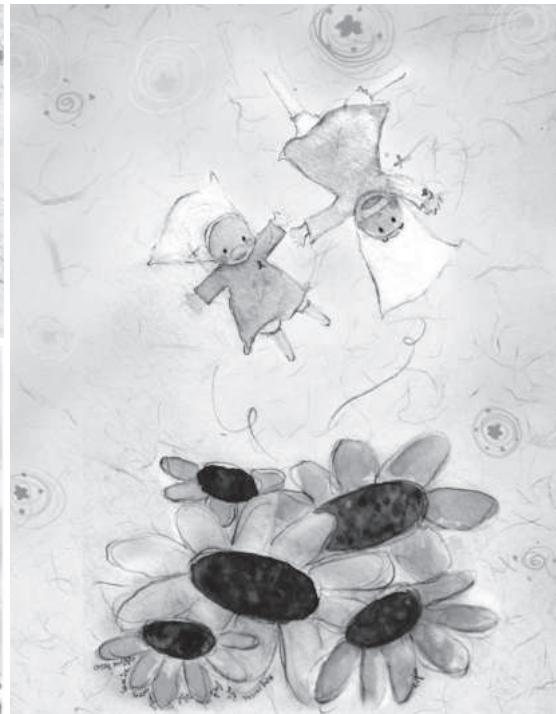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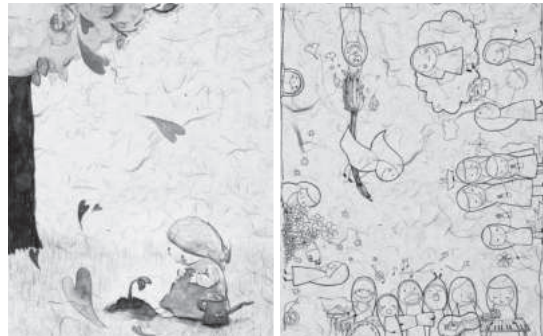


# 그림속의 소비녀

- 이 잔마리 수녀 그림 -

주님께서는 마음에 드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해심에서도 이루신다.

- 시 135.6 -



# 길을 찾는 그대에게

세상에 뿌려지는 기쁨의 작은 씨앗 소비녀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희망의 푸른 종소리 소비녀

세상의 낮은 자리 품어안는 사랑의 작은 여종 소비녀

성가 소비녀의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청년 성소 모임** | **일시** |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시  
**장소** | 성가소비녀회 총원(4호선 길음역)

**꽃숨 모임** | **대상** | 35세 미만의 미혼 남, 여  
**장소** | 인천관구 본원(부천)

**성가YJ 모임** | **대상** | 청년 예수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알고 싶은 남녀 청년  
**일시**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의정부관구본원 북카페(우고리)

**문의** | 010-6357-5806 조 나자레나 수녀 guyujo@hanmail.net  
010-3476-5801 김 오상비오 수녀 Osangpio@hanmail.net

**여중고생 모임** | **일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성가소비녀회 총원(4호선 길음역)

**꽃숨 L 캠프 중·고등학교 여학생 매년 여름방학**

꽃숨 성소피정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 매년 2월, 8월  
꽃숨 청년피정 35세 미만의 미혼 남, 여 매년 10월